

이번호에 우뚝한 한라의 영산 / 어린인 정기로 맞아낸 인걸 / 세기는 부른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진리의 탐구자 / 오, 우리는 문명의 선구자 //
한라산 하리에 바람이 일며 / 태평양 기슭에 물결이 칠 때 / 가슴이 뛰는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문화의 창조자 / 오, 우리는 역사의 건설자 //
진실 불공 협동과 진취 / 우리의 갈 길은 여기에 있다 / 헤치고 나가자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민중의 지휘자 / 오, 우리는 조국의 계승자

제주대신문



진리
정의
창조

1954년 5월 27일 창간 대표전화 (064)754-2277

news.jeju.ac.kr

2012년 5월 23일 수요일 제870호



축시

장한 제대여, 세계로 비상하라 -개교 60주년에 부쳐

오영호

임진년(壬辰年)* 어둠 뚫고
이상(理想)의 날개를 단
어린 비자나무 60년 나이에 돌아
5월의 푸른 하늘 아래 저리 당당하구나.

때론 세찬 비바람에 사지(四肢)가 흔들릴 때
난세의 중심에 서서 용기와 겸손을 심어 준
꽃꽂한 한라의 선각자들
오늘 더욱 푸르다.

이제 너와 나의 얽힌 매듭 풀고 일어나
잡초와 독초를 뽑고 나를 채찍질하면
비전은 절망을 부수고
신념의 탐 세우리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넉넉한 가슴으로
진리(眞理), 정의(正義), 창조(創造)의 문을 열면
혁신의 깃발 휘날리며
달려오는 백록(白鹿)들.

둥 둥 둥, 쇠북을 쳐라
제대의 형제자매여
뜨겁게 손을 잡고 지성의 푸른 들에
장하다, 제주대학교
깊이 새겨두고 싶구나.

* 1952년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1988년 <시조문학>으로 문단에 나옴
시집 <풀잎만한 이유>, <화산도 오름에 오르다> 등



제주대가 300명의 마을이라면?
- 통계로 본 학생, 교수, 직원 현황

3



제주대 개교 60년, 60을 찾아라
- 60세 맞는 교수, 60번째 설립 동아리 회장
60년생 직원, 60시간 봉사활동 학생

8



제주대신문 머릿기사로 보는
제주대학교 개교 60년
- 시대별 기사로 보는 제주대의 변화,
대학문화, 학생운동사

9



제주대 3대 동문가족 고성하씨 가족
도립 제주대학 제1회 졸업생 고시수씨

10



Under the patronage of
UNESCO
Triple Crown, Jeju!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제주! 유네스코 세계 최초 3관왕 등재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제7회 제주포럼

- 일시 : 2012. 5.31~6.2
- 주제 : 새로운 트랜드와 아시아의 미래
- 25개국 2천여명 참가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 일시 : 2012. 9.6~9.15
- 주제 : 자연의 회복력
- 180개국 1만여명의 환경리더 참가

2012 탐라대전

- 일시 : 2012. 9.13~9.22
- 주제 : 부활의 바람
- 10개분야 44종목 행사 개최

유네스코가 인정한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보물섬 제주

믿기지 않을 만큼 투명한 바다와 보물처럼 곳곳에
숨어 있는 **아기자기한 풍경**
땅 위에는 368개의 오름이, 땅 아래에는 160개가 넘는
용암동굴이 있는 **거대한 화산박물관**
8천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살아 있는 생태박물관**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달성에 이은
2011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으로
70억 세계인의 보물섬에 이름을 올린 제주

인간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보물섬 제주**를
잘 가꾸고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개교기념식사 허항진 총장

자랑스런 60년 넘어 위대한 역사창조를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내외 귀빈, 그리고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제주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은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내외 귀빈과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0년 전 오늘, 우리의 선배들은 <도립 제주초급대학>의 이름으로 위대한 지성의 전당을 개원하였습니다. 전대미문의 4·3사건과 6·25라는 동족상잔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용기 있는 선각자들은 8명의 전임교원과 2명의 직원, 그리고 4개 학과의 신입생 58명을 모아 상아탑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 후 4년제 <도립 제주대학>과 <국립대학>을 거쳐, <국립 종합대학교>로 승격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학교 간의 통합을 이루어, 전국 대학사상 최초로 부설초등학교에서부터 전문대학원을 모두 갖춘 국가 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대학교는 일만 이천여 명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공부하는 명실상부한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학 기관평가에서도 전 분야 인증과 함께 국립대학교 객관 만족도 부문 2위 등 주요 분야에서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왔습니다. 이러한 실적들은 우리 대학교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불철주야 질적 성장의 기반을 다진 결과라고 하겠습니

다. 또한, 올해 실시된 제1회 변호사 시험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94%가 합격하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각종 국가고시 합격자를 꾸준히 배출하여 우리 대학교의 위상을 나날이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역대 총장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교직원과 학생, 동문, 그리고 제주대학교를 후원해주신 수많은 분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자랑스러운 제주대학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지난 60년 동안 탐과 문물로 위대한 상아탑의 역사를 개척해 온 모든 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제주대학교는 새로운 도약을 맞고 있습니다. 다양한 창의성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캠퍼스 곳곳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 대학가의 현실은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대학들은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 빠르게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 능력과 연구 능력까지도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도 대학의 혁신과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 또한 모든 대학이 감당해야 할 중대한 현안입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2024년에는 국내 40%의 대학이 입학행수의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제주대학교도 이미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여러분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아심차게 마련한 <비전2020종합발전계획>이 바로 그 이정표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대학이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실천전략과 추진계획이 여러분의 동참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행동방식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비전2020>을 실현해 나갈 때,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우리대학교의 발전을 앞당기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제주대학교의 목표는 가까운 장래에 전국 20위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교는 선택과 집중, 협력과 연대의 네 가지 전략으로, 24개의 지표와 134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목표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의 성공적인 추진은 앞으로 우리 제주대학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우리 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선배들의 공적을 높이 기리면서, 그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시 한차례 일어서서 대학이 우리 모두에게 부과한 신성한 책임과 의무를 사명감을 갖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약속과 실천만이 우리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을 우리 제주대학교의 <제2 중흥의 날>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인들은 창의성과 뜨거운 열정을 모아 제주대학교의 앞날 내일을 준비합시다. 역사는 도전하는 자의 몫이며, 창조하는 자의 기록임을 기억합시다.

저는 총장으로서 제주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이 위대한 역사창조의 길에 다시 한 번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이제도,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과 협조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왔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다함께 뜨거운 지성과 열정을 모아 대학 중흥의 등불을 밝힙시다.

끝으로, 60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5월 25일
제주대학교 총장 허 항 진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계를 선도하는 동북아 거점 대학으로 성장하길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개교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주대학교가 맞이하는 60주년의 역사는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는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제주 4·3과 6·25 한 국전쟁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적이고 불행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은 제주도민과, 교육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는 신념으로 제주대학교의 개교와 발전을 이끌어주신 선각자들에게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주가 감금에서 시작하여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지금은 국제자

유도시 비전을 통하여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기까지 제주대학교가 배출한 많은 인재들이 흘린 탐과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연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주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운명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제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과 가치들을 활용하여 세계가 찾고 세계로 가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서로가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금년도는 제주발전을 위한 쟁크뱅크 인프라가 크게 활성화되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며칠 후 열리는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발전하고 세계 전문가

들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대할 기회입니다.

재외도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가 당면한 현안과 과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주희망포럼은 오늘 서울에서 처음 개최됩니다.

지난 4월에는 제주도내 거주 외국인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자문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제주대학교의 역할을 믿습니다.

우리 제주가 새로운 변화를 읽고 세계의 트렌드를 앞서가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지역거점대학인 제주대학교가 더욱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동북아 거점대학으로 제주대학교가 다시 한번 더 도약하길 바랍니다.

제주도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의 개교 기념을 거듭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제주대학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태환 총동창회장

제주대와 지역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 수행할 것

사랑하는 후배 재학생 여러분, 그리고 허항진 총장님을 비롯한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우리 제주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았습니다. 5만여 동문과 함께 축하드리며, 모교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는 저로서는 정말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아직 남아 있던 1952년, 도립 제주초급대학으로 우리 선배들은 가장 먼저 대학의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인 인재양성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우리 제주대학교는 80년대 용담캠퍼스에서 아라캠퍼스로의 이전과 1982년 종합대학교 승격을 계기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대에서 배출한 인재들은 이제 제주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없는 제주도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지난 60년간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학 구성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제주대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그 해답을 지역사회와의 밀착 경영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인재를 받아들이고, 전 세계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해야 합니다. 세계와의 교류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세계 속으로 나가는 것도 지역사회에 굳건히 뿌리를 내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동창회에서는 지역사회와 제주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주대학교의 100년 대계를 위한 큰 발걸음에 우리 총동창회는 언제나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주대학교의 개교 60주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온 동문과 함께 기원합니다.



이상봉 교수회장

과감한 제도개선 통해 내적 성장 이뤄내자

용두암의 정기를 받고 용두암 바닷가에서 발원이 되고 52년 임진년 응의 해에 설립된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60년은 환갑, 회갑이라고 하여 간지(干支)가 한 바퀴 돌고 새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학도 제2, 제3의 도약의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지요. 해서 60년의 의미는 지역의 명문대학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 융처럼 도약할 것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대학은 외형적인 성장을 위하여 달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은 외적 성장, 백화점식 성장보다도 내적인 성장 즉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의 질보다는 연구실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사회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교수중심의 교육과정이 제공되지 않았느냐하는 반성도 필요합니다. 성장과 성과위주로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주변을 살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의 교과부에서 '대학 구조조정이다, 선진화 방안' 이다 해서 성과위주의 경제논리만을 강조하면서 대학은 겉모습을 갖추기 위한 몰아붙이기식 대학운영으로 구성원들이 여유가 없어지고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사람이 환영을 받고,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는 연구만 하다 보니 시간을 두고 성과를 내야하는 연구는 감히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교수와 학생, 교수와 교수간에 인간적이고 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연구에 매진하다보니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학에 학문의 자율성, 여유와 낭만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영 어렵습니다.

재정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향후 대학본부와 협의를 거쳐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정에 대한 규정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장후보자 선정방법의 개선논의 과정에서 교수님들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떤 제도는 일정단일이 있는 것이지요. 현대 자신이 주장하는 제도의 장점만을 고집하기면 항상 다툼이 생기겠지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전쟁은 선과 악의 다툼이 아니라 선과 선의 다툼입니다. 한 쪽에서는 선인데 상대 쪽에서 보면 악일 수 있잖아요? 입장이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역지사지(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이제 구성원간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이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소통은 서로가 신뢰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신뢰를 하면 소통은 절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화합은 특정의 사안이나 문제가 있을 때 일방적인 강요나 밀어붙이기식 문제해결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신뢰를 바

탕으로 한 소통이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주대가 지역거점 대학으로 계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허항진 총장이 늘 강조하는 글로벌 명품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겠지요.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에서 명품을만 들려고 하면 시간도, 인력도, 재원을 분산됩니다. 명품을 만들려는 대상을 분명히 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 대학이 특성화되고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이 되겠지요.

이제 6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쌓은 경험과 정열을 바탕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대학, 그리고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대학을 기대합니다.



개교 60주년 행사 ‘풍성’

학술·문화체육·대외행사 열려
연말까지 다채로운 행사 마련

오는 27일 개교 60주년을 맞이해 제주대가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연다.

개교 60주년 개교기념식이 오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오는 27일 제주대 3대 동문을 제주대 캠퍼스로 초청하는 행사도 갖는다. 이는 제주대 3대 동문 가족을 모교로 초대해 기념페 전담, 캠퍼스 투어, 학과 방문 등을 하는 행사이다.

또 개교 60주년 그린캠퍼스 선포식이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그린캠퍼스 투어코스' 조성계획에 따라 안내판 제작, 시설 보완 등 코스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며, 오는 24일 '그린캠퍼스 선포식' 행사에서 그린캠퍼스 선인과 더불어 교수, 직원, 학생 대표의 그린캠퍼스 실천결의 및 그린캠퍼스 투어코스 오픈 행사를 갖는다.

아라캠퍼스에서 예전 용담캠퍼스까지 걷는 이색행사도 진행한다. 24일 열리는 '대학 발상지 탐방 걷기행사'에는 교직원과 동문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40분 아라뮤즈홀에서 출발해 제주시청, 중앙로 사거리, 관덕정, 용담사거리 등을 거쳐 사범대학부설 중·고교까지 걷는다. '대학 발상지 탐방 걷기행사' 참석자들은 옛 용담캠퍼스에

도착한 뒤 발상지 기념비 주변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

개교 60주년 기념 '그랜드 콘서트'는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부터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모교의 개교 60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 예술디자 인대학 음악학부 재학생 및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들이 대거 참여한다.

연주회는 허대식(83학번) 교수가 지휘하는 제주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대학축전서곡' (요하네스 브람스 작곡)을 시작으로 무대가 열린다.

제주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만주에 맞춰 소프라노 임경숙(88학번), 이태리 아레나 로마, 밀노바 아카데미 원장)은 양중해 작사, 이춘기 작곡의 '한라산',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 바이타' 중 '아! 그이인가', 바리톤 김승철(85학번, 계명대학교 성악과 교수)는 석호 작사, 조두남 작곡의 「벚노래」,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를, 또한 듀엣으로 베르디 오페라 '일토라보토레' 중 '들리는가? 가혹한 눈물의 소리를'을 각각 들려준다.

행사문의=홍보출판센터(064)754-2046

김명지 기자

때	행사명	곳
5. 24	그린캠퍼스 선포식	아라뮤즈홀
5. 24	발상지 탐방 걷기 행사	아라뮤즈홀
5. 25	개교 60주년 기념식	아라뮤즈홀
5. 25	대학 유공인사 초청 리셉션	아라캠퍼스 내 글로벌하우스
5. 25	문화교류관 개관식 개교 60주년 기념 전시회	문화교류관
5. 25	그랜드 콘서트	아라뮤즈홀
5. 27	홀터밍데이	학내일원
5. 27	제주대 3대동문 가족행사	학내일원
5-6월	제주어 말하기 행사	학내일원
5월중	국어국문학과 동문작가 작품전 및 제주대·생기원 Joint Workshop	학내일원
6. 1	연구소 통합 학술대회	학내일원
6월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체육관
7. 9-8. 3	세계환경과 섬하계대학 대학생 학점과정	교양강의동
7. 17-7. 27	세계환경·해양문화·평화유산 세계교사지도자 과정	교양강의동
9. 3-11. 30	만능 홍성표인생 사진 특별전	문화교류관
9. 6	서울올림픽 24주년기념 봉송도 자전거 도일주	성화봉송로
9월중	세계자연보존총회 개최 기념 폐선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9. 30	반려동물 한마당	탐동해변공영장
10. 19	경상대학 국제 학술 심포지엄	경상대학
10. 30~11. 2	세계해양지도자 회의 동계대회 The Is-lands of 20 Summit 동계 준비회의	서귀포 KAL호텔
10. 21-10. 26	2012년 제10차 국제식물문자생활학 총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0. 26-10. 27	의학전문대학원 종합학술대회 및 대도민 건강증진 캠페인	제주대학교병원 세미나실
10월중	제주도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에 관한 심포지엄	국제교류회관



여러분, 제주대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 제주대 마을은 설촌 60년을 맞이했어요. 환갑의 나이에 접어든 지금, 우리 마을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대 마을은 학생 마을, 교수 마을, 직원 마을마다 각각 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맡은 바 몫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죠. 웃음 넘치는 제주대 마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주대가 300명의 마을이라면?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데이비드 스미스 저)을 참고했으며, 학생 마을, 교수 마을, 직원 마을당 각각 100명의 인원이 살고 있다고 가정했다. 2011년 통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학생 마을

세금 짠 마을에 복지도 잘 돼 있어요

학생 마을은 남자 54명, 여자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을은 다시 소규모 마을로 쪼개지는데, 인문마을 12명, 사회과학마을 9명, 경상마을 19명, 사범마을 6명, 생명마을 5명, 해양마을 9명, 자연마을 13명, 공과마을 16명, 교육마을 4명, 수의과마을이 5명, 간호마을 2명, 예술마을 3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상마을에 사는 주민이 가장 많고, 의과마을에 사는 주민이 가장 적네요. 또 이 마을은 제주도 토박이 출신 주민이 83명이고, 다른 곳에서 온 이주민이 17명이예요. 토박이 주민 수가 압도적이지요? 이주민 중에는 국내에서 온 사람이 15명, 외국에서 온 사람이 2명 이랍니다. 국내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서울·경기에서 온 주민이 5명으로 가장 많아요. 한편 이 마을의 취미 생활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우선 이 마을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리'에 참여하는 주민은 100명 가운데 22명밖에 되지 않아요. 독서량을 살펴보면, 한 달 동안 100명 중 42명이 책을 빌렸네요. 이들이 빌리는 대출권수는 한 달 평균 2권으로, 그리 많은 수치는 아니죠. 참, 이 마을은 복지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우선 세금이 굉장히 싼 편이예요. 한 해 평균 402만원만 내도 살 수 있죠. 거기다가 마을에서 직접 세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총 11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중요한 특징은 일정 년도를 거치면 이곳을 떠나 직업을 구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마을을 거처간 주민들 중 몇 명이나 직업을 가졌을까요? 51명은 직업을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나머지 49명은 아직 먹고 살 기반이 확립되지 않았네요.

51명

49명



▲ 학생마을을 거처간 100명의 주민 중 51명은 취업에 성공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49명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교수 마을

교수마을 주민은 40~50대가 대부분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살고 있는 교수 마을을 살펴볼까요? 이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학생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자신들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해 연구 성과를 남들에게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이 마을은 남자 85명, 여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자의 비율이 압도적이지요. 연령층을 살펴보면, 30대 이상은 10명, 40대 이상은 42명, 50대 이상은 39명, 60대 이상은 9명으로 이뤄져 있어요. 대체로 40~50대가 많은 편이란 걸 알 수 있죠. 해마다 30대는 줄어들고, 40~60대는 늘고 있는 추세랍니다. 이 마을은 제주대 학생마을 출신 주민도 많지만, 다른 대학교의 학생마을에서 공부한 뒤에 온 주민이 더 많아요. 100명 중 제주대 학생마을 출신은 20명, 다른 대학교의 학생마을 출신은 47명이나 돼요. 이 중 서울대 학생마을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방대한 양의 지식을 갖고 있는 만큼 자신의 연구 성과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논문을 써야 해요. 이들은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논문을 쓰고 있을까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를 살펴보면 한 해 동안 100명당 92개의 논문을 쓰고 있네요.



30대 - 10명

40대 - 42명

50대 - 39명

60대 - 9명

▶ 교수마을 주민들의 연령대는 대체로 40~50대가 많아요. 해마다 30대는 줄어들고, 40~60대는 늘고 있는 추세랍니다.

직원 마을

20년 이상 살고 있는 주민이 절반 가까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대 마을 전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민들이 모여 사는 직원 마을로 향해볼까요? 이 마을에는 남자 67명, 여자 33명이 살고 있는데요, 각자 일해온 년수가 천차만별이랍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온 지 10년이 안 된 주민은 100명 중 22명이고, 10년이 넘은 주민은 78명이나 됩니다. 20년이 넘게 살고 있는 주민 역시 47명으로 굉장히 많은 편이죠. 또 이 마을은 다시 관리하는 분야에 따라 여러 기관으로 나뉘답니다. 살펴보자면, 우선 중앙에서 제주대마을 전반을 관리하는 본부에는 36명의 주민이, 기타 하부조직에는 6명, 단과대학 내에서는 30명, 부속시설에서는 23명의 주민들이 맡은 바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부속시설에서 일하는 모습을 좀 더 파고들어가 보면, 학생마을 주민들의 교육을 돕는 교육지원 시설에서 16명, 교수마을 주민들의 연구를 돕는 연구시설에서 3명, 기타시설에서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직원마을 주민들은 제주대 마을 전체를 위해 열심히 땀흘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올해 60살을 맞은 제주대 마을의 현 주소를 살펴봤어요. 정말 다양한 주민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죠?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도 우리 제주대 마을 주민들은 진리·정의·창조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둔 채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요?

김소영 기자

<http://banking.nonghyup.com>



그들이 온다!

NH농협은행이 온다



I am Korean
NH농협은행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증권 NH농협캐피탈 NH농협신물 NH-CA자산운용

사 설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0은 하나의 순환을 의미하는 숫자이다. 60초가 1분, 60분이 1시간을 이루는 것처럼, 60갑자(甲子)가 한 번 순환하면 다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60진법이 고대 수메르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니, 인류 문화의 발생 당시부터 이런 순환의 섭법이 발견되었다는 뜻이다.

제주대학교는 1952년 5월 27일, 당시 문교부로부터 제주초급대학 설립 인가를 받은 날짜를 개교 일자로 삼아 기념하고 있다. 인가 직후, 같은 해 6월 신입생을 모집하고, 58명의 학생과 8명의 전임교원으로 같은 해 8월 8일 제주향교에서 개교 기념의식을 거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대로 된 학교시설마저 갖추지 못한 초라한 출발이었다.

1952년, 그 임진(壬辰)년으로부터 60년이 흘러 다시 맞은 임진년, 국립 제주대학교는 교육대학을 포함하는 11개 단과대학, 52개 학과,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한 9개 대학원, 부설 초·중·고등학교, 제주대병원 등 3개 연관 법인, 1만여명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585명의 학부 및 대학원 교원, 882명의 교직원이라는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한 마디로 경이적인 발전의 60년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역사는 과거를 향한 것만이 아니다. 현재와 미래, 이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지향이 또 한 역사를 규정하는 것이다. 60년이라는 하나의 순환

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는 더욱 더 미래를 가능하고 다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60년 이룩한 성과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60년 우리는 무엇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인가. 순환은 그저 쳇바퀴를 맴도는 것이 아니다. 2012년 새로운 임진(壬辰)년에,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방향은 이미 설정되어 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도약으로, ‘선진화’라고 부르던, 뭐라고 부르던,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는 품질(quality)이라는 과제에 매진해야 할 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대학이 앞서서 이 시대적, 사회적 과제를 이끌어야만 한다.

어려운 점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품질이 세계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명품’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된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피할 수도, 되돌아 갈 수도 없는 조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희망적인 점은 품질의 척도는 매우 다원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만의 강점을 살린 독특한 명품을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개교 60주년, 이미 이룩한 성과의 기반 위에서 또 한 단계의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당당한 주체로서 즐기는 축제여야

개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아라대동제’가 다음 주에 펼쳐진다. 총학생회 주최로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게 될 이번 축제에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는 이번의 대동제가 대학구성원 모두 한데 어우러지는 흥겨운 지성의 마당이 됨으로써 제주대학교가 새로운 도약을 통해 세계 속의 대학으로 성큼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은 이번 축제의 당당한 주체로서 평소애 쌓아올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의 지성을 과시하고 젊음을 마음껏 불사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성껏 꾸미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잔치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축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최근 몇 년의 축제가 그랬듯이, 연예인 초청 공연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행사들을 마련하는 데 애초 흔적은 보이지만, 예산과 규모 면에서 볼 때는 연예인 공연에 편중되었다는 말이다. 물론 연예인 초청 행사를 갖는다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행사를 마련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한다.

문제는 그런 행사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대학인들이 축제의 온전한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대학 축제에 대학인들이 객석에서 박수나

치며 환호를 지르는 데에 만족해서야 되겠는가. 노래를 불러도 우리가 부르고 춤을 추어도 우리가 추어야 진정한 우리대학교의 축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1만 학생들 중에는 노래를 만드는 이도 있을 것이고, 노래를 잘 부르는 이도 있을 것이다. 악기를 잘 다루는 연주자도 있고, 놀랄 만한 춤꾼도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 학생들이 만든 노래, 우리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를 우리 학생들의 연주와 함께 들으면서 박수치고 소리 지르며 춤추는 무대가 많아야 더 바람직한 축제가 아니겠는가. ‘동아리 공연’과 ‘학과 장기 자랑’ 행사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정도의 무대는 우리 학생들의 창의성과 패기를 널리 과시하기에는 너무나 비좁아 보인다.

모든 행사 준비가 다 끝났을 이번 축제의 경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렇더라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주체적으로 즐기려고 각자가 노력하자. 아울러 부디 내년부터는 대학인들이 주체가 되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좀 더 많이 마련하자는 굳센 다짐을 하자. 축제 예산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학생회비)에서 나온다. 그런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에 우리 학생들이 손님이나 구경꾼이어서 안 된다. 우리 마당에서 펼쳐지는 축제에 당당한 주인으로서 신나게 놀 수 있어야 한다.

개교 60주년 기념식 오는 25일

오전 11시 아라뮤즈홀서
근속 및 공로 유공자 표창

개교 60주년 기념식이 오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행사는 학사보고에 이어 卍한라산 현승탁 회장의 발전기금 전달, 장기 근속 교직원 및 부설 초·중·고 우수교사에 대한 시상, 총장 기념사, 우근민 도지사·김태환 총동창회장·서만철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공주대 총장)·댄 존슨 미국 텍사스 A&M 커머스대학 총장의 축사, 교직원 합창단의 축하,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미국에선 텍사스 A&M-커머스 대학교 댄 존슨 총장과 델라웨어주립대 아미르 모하마디 부총장 및 광역식 경영대학장이 제주대를 방문한다. 댄 존슨 총장은 개교 기념식때 환영사를 한다.

중국은 장안대 자오 준하이 부총장 등 4명, 서북정법대 리 평안 사무처장 등 4명, 교육기관인 화아국제교육연맹 최문빈 이사장이다.

일본에선 도쿄의과대 우스이 마사히코 총장 등 3명, 나가사키대 이시마쓰 다카카즈 공과대학장 등 2명이 제주대 개교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필리핀 세인트폴데 릴리아 토렌티노 총장 등 2명, 러시아 태평양국립대 알렉산더 E 주바레브 부총장 등 2명도 제주를 찾는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기재직자 및 공로 유공자 91명에게 근속·유공표창 및 감사패가 전달된다. 다음은 시상자 명단.

▲장기재직 표창
△30년 근속 공로패
교수=김병택 고충석 고경표 양성호 류기중 안장영 최치규 남사용 이춘기 김선희 고성호 장성수 정종덕 강지용 최영찬 윤창훈 허종철 강동인 직원=부영철 박승석 김호선 윤성

보 김진성 김남진 고춘자 문영옥 고봉권 좌종석 오영기 송성준 박순옥 문희옥 문영숙

△20년 근속 공로패
교수=이창익 황용철 강동일 방익찬 김용주 신동범 강진식 임춘배 이경갑 안재철 최병길 유영봉 김남형 김원형 김봉애 양두승 고대만 이광진 김현태 김진욱 김석중 이창현 이선주 임상빈 강민제 김효심 권영호 김상찬 직원=고택성 강태영 김미숙 오병연 홍경애 한희균 한형권

▲2011 2학기 강의평가 우수교원 표창 △교수=정창원 김태호 김덕수 한남의 허대식 양덕순 현해남 이윤준 이주영 김현수 강기춘 문일주 조경호 김민영 △시간강사=이정열 고희정 안애실

▲우수교사 표창장=강문보 현수진 장원익
▲발전기금 유공인사 감사패=김철균 강경문 김남식 고석찬 김동욱 김동현 기자

“제주도에 국제중재센터를 만들어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지난 11일 국제교류회에서

법과정적연구소 세미나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상찬(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 행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상찬 교수는 “국제거래의 활성화는 국제상사분쟁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제중재의 증가를 가져온다”며 “최근 타결된 한-미 FTA, 한-EU FTA를 감안한다면 대한민국 국가나 기업이 국제상사분쟁에 많은 기업들이 처할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제비즈니스 거점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정착되면 국내외 기업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투자해 영업, 마케팅, 물류, 금융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다보면 다양한 상사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난 11일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주재발표회에서 김상찬(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현석(대한상사중재원 진흥전략팀)팀장, 양병희 건국대 명예교수, 김용익(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전략팀) 처장

것이다.

김상찬 교수는 “제주에 국제중재센터가 들어서면 외국의 국제사법기관이나 외국의 국제중재센터를 거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투자유치 활성화는 물론 제주지역,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이유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규정으로 받는 설립과정의 탄력성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점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지정학적 여건과 교통의 편리성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제상사분쟁이 많지 않은 점, 정부지원과 관련 법규

등이 불투명 하다는 점 등을 약점으로 제시했다. 현재 제주대 로스쿨 졸업생들이 법조인으로 배출되는 가운데, 이들 졸업생들이 설립될 국제중재센터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제주대 로스쿨과 윈윈(win-win)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회로 꼽았다.

한편, 법과정적연구소(소장 박규운 교수)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과 세미나실에서 국제자유도시 추진국 전문가를 초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명지 기자

오현봉 회장 발전기금

3억5000만원 쾌척

지금까지 10억8000만원 기부



지난 21일 총장실에서 오현봉 회장(왼쪽)이 총장에게 대학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남식 전 기성회장.

오현봉 유성건설 회장이 지난 21일 대학 발전기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

제주대는 이 기금중 3억원은 유성기금으로 적립해 장학금으로 쓰고, 5000만원은 인재양성관 건립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오 회장은 발전기금 9억8000만원과 BK21 대응자금 6250만원, 친환경농부리사업단 대응자금 4000만원 등 총 10억8250만원을 제주대에 쾌척했다.

제주대는 오 회장의 기업가로서의 사회적 책임,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실천 정신을 기려 지난 2006년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한 바 있다.

JEBS 영상제 열려

제주여상 ‘대상’ 수상

제10회 JEBS 영상제에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가 뽑은 ‘같은 사랑, 다른 느낌’(오현주 연출)이 대상을 받았다.

지난 10일 아라뮤즈홀에서 열린 제10회 영상제는 사랑을 주제로 영상제를 경연을 진행했다.

대상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같은 사랑, 다른 느낌’이 받았다. 학생부 최우수상은 ‘돌에 물고기’, 우수상은 오현중학교의 ‘아름다운 동행’이 수상했다. 대학부 최우수상은 용인대 영화영상학과와 ‘고등어’ 우수상은 공주대 영상학과와 ‘클릭’이 선정됐다. 관객이 투표한 특별상은 용인대 영화영상학과와 ‘고등어’가 뽑혔다.

이날 본선 경연은 학생부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의 정하은팀이 출품한 ‘그대로 그 나뭇대로’ 등 5개 작품이, 대학부는 공주대 영상학과 김재민 연출인 ‘클릭’등 3개 작품이 겨뤘다.

제32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제32회 백록문학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2년 6월 11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제출할 것.

5. 발표 : 제주대신문 872호(2012년 7월 4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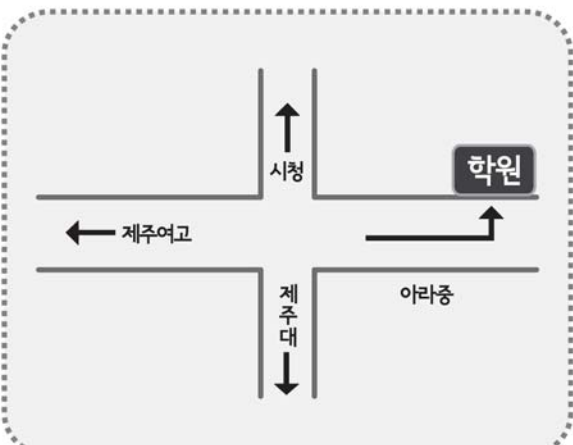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TOEIC이 되면
취업이 보인다

TOEIC, 왜 외국어교육원인가?

- ▶ 검증된 실력과 강사진
- ▶ 부담없는 반값 수강료 System
- ▶ 장·단기 TOEIC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 ▶ 해외연수 기회 등 다양한 혜택
- ▶ 무료 모의토익 기회 제공
- ▶ 첨단시설과 쾌적한 환경
- ▶ 편리한 접근성

☞ 외국어교육원 TOEIC 특별반 안내 ☞

- o 장기과정 : 2012. 3월 ~ 12월(신입생과정)
- o 단기과정 : 연 4차 과정(봄,여름,가을,겨울 각 8~10주), 연 6차 과정(각 6주)
- o 개설강좌 : Level별 TOEIC RC/LC, TOEIC Speaking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Foreign Language Institute

☎ (064)754-2291~2292, http://fii.jeju.ac.kr

업 대 계 계	3,675,427,000	0	0	3,675,427,000	3,460,159,180	18,000,000	2,800,000	98,467,820	95%
[연 간 비]	1,551,369,000	15,482,000	0	1,566,851,000	1,548,962,100	0	8,940,000	17,848,900	99%
별	285,472,000	0	0	285,472,000	282,057,000	0	2,040,000	1,374,960	99%
기 타 수 입	8,100,000	0	0	8,100,000	7,600,000	0	0	500,000	94%
포 기 구 수 입	0	4,000,000	0	4,000,000	2,675,000	0	0	1,134,940	72%
기 타 수 입	1,072,305,000	13,582,000	0	1,085,887,000	1,070,030,060	0	0	10,836,940	99%
영 청 총 계	1,452,000	0	0	1,452,000	1,452,000	0	0	0	100%
영 구 자 리 비	135,840,000	-2,080,000	0	133,760,000	129,757,940	0	0	4,002,060	97%
국 회 계 발 영 구 비	3,550,000	0	0	3,550,000	3,550,000	0	0	0	100%
국 회 자 리 항 동 영 구 비	44,650,000	0	0	44,650,000	44,650,000	0	0	0	100%
[총 연 비]	1,388,776,000	-759,220	0	1,388,016,780	1,215,784,870	18,000,000	5,470,220	148,761,640	89%
영 반 수 용 비	503,737,000	550,390	0	504,287,390	494,195,680	0	2,420,220	7,671,430	98%
국 회 오 구 및 제 제	412,065,000	-170,000	0	411,895,000	305,477,860	0	0	106,417,140	74%
국 회 배 시 비	8,900,000	0	0	8,900,000	6,390,000	0	0	2,510,000	72%
영 청 수 입	30,655,000	-2,730,000	0	27,925,000	27,729,000	0	0	196,000	99%
영 지 비	32,000,000	-1,294,000	0	30,706,000	30,696,000	0	0	10,000	100%
국 회 비	5,030,000	0	0	5,030,000	5,001,000	0	0	29,000	99%
시 설 장 비 유 지 비	30,817,000	2,700,000	0	33,517,000	32,288,500	0	0	1,228,500	96%
자 리 항 선 낙 비	830,000	0	0	830,000	830,000	0	0	0	100%
자 리 비	18,020,000	-399,220	0	17,620,780	16,999,880	0	0	620,900	96%
국 내 여 비	74,727,000	-897,190	0	73,829,810	60,886,200	0	760,000	12,183,610	82%
국 외 여 비	67,300,000	-316,250	0	66,983,750	60,203,370	0	1,600,000	5,180,380	90%
국 회 자 리 비	720,000	0	0	720,000	720,000	0	0	0	100%
영 무 수 산 비	119,752,000	1,247,080	0	120,999,080	108,541,000	0	690,000	11,768,090	90%
리 수 수 입	21,223,000	550,000	0	21,773,000	21,326,400	0	0	446,600	98%
영 구 개 발 비	63,000,000	0	0	63,000,000	44,500,000	18,000,000	0	500,000	99%
[연 구 예 전 비]	614,834,000	-23,322,780	0	591,511,220	573,280,000	0	1,289,730	16,940,620	97%
보 상 금	49,938,000	1,710,000	0	50,648,000	48,069,540	0	1,289,730	2,288,730	93%
보 직 총 당	23,782,000	1,000,000	0	24,782,000	23,865,100	0	0	916,900	96%
배 상	118,995,000	4,862,670	0	123,857,670	123,857,670	0	0	0	100%
경 상 보	422,119,000	-30,895,450	0	391,223,550	377,488,550	0	0	13,735,000	96%
[기 타 연 구 예 전 비]	120,448,000	8,600,000	0	129,048,000	124,311,340	0	0	4,916,660	96%
시 설 비	7,500,000	0	0	7,500,000	7,095,000	0	0	405,000	95%
시 설 채 록 비	12,848,000	8,600,000	0	21,548,000	117,038,340	0	0	4,511,660	96%
백 수 수 입 비	0,880,930,000	0	469,287,600	11,150,000,600	9,877,170,240	2,365,899,060	0	21,300	100%
[연 간 비]	56,772,000	-1,418,000	0	55,354,000	55,354,000	0	0	0	100%

특성화 사업단 현장 < 10 > 제주흑우의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사업단

멸종 위기에서 1등급 종자로 키워... 안정적 공급 기대

윤기가 흐르는 검은 털빛과 탄탄한 체구를 가진 소. 일본 소인 와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선사시대 이후 제주에서만 사육된 토종한우 ‘제주 흑우’를 말하는 것이다. 흑우는 고려시대 이후 임금급 진상품으로 올라갔을 정도로 예로부터 명품으로 꼽혀왔다. 다른 한우에 비해 제주 흑우는 등심의 마블링이 가늘면서 촘촘하게 박혀 있고, 뒷다리까지 마블링이 우수해 맛이 일품이다. 최근에는 제주 흑우가 육질이 뛰어나고 불포화지방산이 많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웰빙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 흑우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제주흑우의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사업단’ (이하 사업단, 단장 박세필 교수)은 사라져가는 제주 흑우의 우수유전자를 복원에 대량생산의 길을 열고 있다 사업단은 지난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의 기획과제로 사업이 선정돼 연간 약 5억원을 5년 동안 지원받으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 안정적으로 공급시킬 계획이다. 지금까지 사업단이 복제에 성공한 제주 흑우들은 흑영돌이, 흑울돌이, 흑우순이 등 3마리가 있다.

지난 2009년 3월 11일 태어난 ‘흑영돌이’는 당시 제주에 서식하는 흑우 300마리 중 가장 몸집이 컸던 씨수소의 귀세포를 노령화되기 전 떼어내 복원한 것이다. 귀세포를 제공한 흑우는 올해 11살로 노령화됐지만, 흑영돌이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났다.

흑영돌이는 검은색을 뜻하는 ‘흑’과 제주 옛 이름 영주에서 따온 ‘영’, 남자를 뜻하는 ‘돌이’를 합친 이름이다.

같은 해 9월 9일 태어난 ‘흑울돌이’는 1994년 태어나 노령으로 도축된 씨수소를 죽기 전 귀세포를 떼어내 복원했다. 이미 죽은 소가 어린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 것이다. 흑울돌이에게 귀세포를 제공한 흑우는 당시 정액의 질이 제일 우수했던 씨수소로, 이 흑우와 교배하면 1등급이 90%나 출현했었다.



지난해 6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습을 보인 흑우 3마리. 2009년 3월과 9월 복제한 흑우 씨수소인 ‘흑영돌이’와 ‘흑울돌이’ 그리고 2011년 6월 복제한 ‘흑우순이’ (맨 왼쪽).

얼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냉동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난자가 몇 개 살아남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사업단이 개발한 신기술은 15분만에 초고속으로 수정란을 동결시키고, 단 1분만에 융해 후 곧바로 대리모 자궁에 이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신기술은 복제 수정란을 코팅해 -196도에서 동결시키는 방법으로, 난자 내 수분이 유지된 상태로 정지된다. 기존의 냉동법을 적용한 수정란과 달리, 이 기술로 동결된 후 녹인 수정란은 대부분 살아난다.

복제 수정란은 10개를 키우면 겨우 1~2개만 자궁에 이식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기가 까다롭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리모 소의 자궁환경이 조성됐을 때 이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대리모 소가 발정 후 자궁환경이 조성됐을 때 복제 수정란이 준비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정란 냉동기술이 중요하다.

사업단은 17년의 연구 끝에 ‘초급속 냉동·융해 방법’을 개발해내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우수 유전자를 지닌 소의 수정체세포를 복제해 얼려 놓으면 신기술을 이용해 언제든지 대리모 소의 자궁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세필 (분자생명공학전공) 교수는 “초급속 냉·해동 신기술로 탄생시킨 흑우순이를 비롯해 흑영돌이와 흑울돌이 3마리 모두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라져가는 제주 흑우 우수 유전자의 종 보존과 대량생산·산업화를 위해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단은 사라져가는 제주의 토종자원 흑우를 보존하고, 흑우가 명품 브랜드로 대량 생산되는 길을 열고 있다. 사업단은 생전에 가장 우수했던 흑우 씨수소와 씨암소를 ‘흑울돌이’와 ‘흑우순이’로 다시 탄생시켰다. 앞으로 세간에 유례없는 우수한 유전자를 지닌 ‘수퍼소’의 탄생이 기대된다.

고용희 기자

농림부기획 과제로 5억원씩 5년간 지원

세계 최초로 체세포 핵이식 방법 이용

2009년 3월 첫 제주흑우 복제 성공

300여 마리만 제주에 서식하며 멸종위기에 놓여있던 흑우는 사업단의 연구가 진행된 이후 450마리로 늘어났다. 더불어 암소에 흑우정액을 투입해 태어난 1세대 흑우는 1000여마리 정도 더 서식하고 있다. 합하면 총 1400여 마리가 늘어난 것이다.

사업단은 제주에 서식하는 흑우 중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흑우를 보존하기 위해 ‘복제 송아지’를 탄생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멸종 위기에 놓인 제주 흑우를 대량생산하고, 1등급 우수 종자를 농가

흑울돌이 이름의 ‘울’은 올레길에서 따온 것이다.

이어 이듬해인 2010년 10월 31일 태어난 ‘흑우순이’는 1994년 태어나 노령으로 도축된 우수한 씨암소를 복원한 것이다. 특히 흑우순이는 사업단이 세계 최초로 확립한 ‘초급속 냉·해동 신기술’과 체세포 핵이식 방법을 접목해 태어났다.

기존의 난자 냉동법은 2~3시간이 소요되는 ‘완만 동결’이었다. 이 방법은 난자를 얼릴 때 수분이 잘 빠져나오게 난자를 서서히



제주대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의소리와 함께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6월 5일까지 총 13개 강좌가 열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새로운 제주문화 플랫폼 추구하고 싶어

지속가능한 판파라질을 위해

고건혁 봉가봉가레코드 대표

자본이나 대중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것이 ‘인디음악’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들어줄 것이냐 보다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의 이름이 ‘봉가봉가레코드’이다. 언뜻 우스꽝스러운 이 이름은 의외의 뜻을 품고 있다. 나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우선이지만, 남에게 들려주는 것이 곧 나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다. 자긍심을 가지고 대중과 소통하며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디음악의 의미이자 봉가봉가레코드의 모토다.

제주에서 나고 자랐다. 어릴 적부터 음악에 대한 관심이 유난했다. 그 당시 음반 차트를 장악했던 마이클 잭슨을 밀어내고 ‘너바나’ 같은 음악이 차트 앞 순위를 꿰찼다. ‘너바나’의 음악은 한 마디로 ‘너 스스로 하라(Do It Yourself)’는 정신이 배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었다. 곧 좌절에 부딪혔다. 막상 밴드를 결성해보니 내 자신이 음치인데다 악기를 다루는 데에 재능이 없었다. 반면, 기악·홍보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악어와 악어새가 공생하듯 뮤지션도 이를 받쳐줄 존재가 필요하다. 대중음악이란 만드는 것 못지않게 대중에게 전달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

음악의 꿈을 놓지 않고 서울대에 진학했다. 2005년 지금의 ‘봉가봉가레코드’를 설립했다. 좋아하는 선배들이 사회에 나가 음악을 놓는 걸 보면서 내 친구들은 음악을 놓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바람 하나로 일을 벌였다. 교과서에 쓰인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뜻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판파라질’은 자신의 음악을

온전하게 표현할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판파라질이다.

그 때부터 고민이 시작됐다. 어떻게 하면 지속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었다.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야 했다. 몇 평짜리 자취방에서 컴퓨터 한 대와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서도 최선의 음악을 해야 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첫 히트작인 ‘싸구려 커피’는 통기타 반주가 전부다. 우리들의 트레이드마크인 ‘수공업 소형음반’을 선보였던 이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고안해 낸 것이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거둬들인 수익으로 다음 작업을 지속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9장의 앨범을, 이런 방식으로 30만장을 찍어냈다.

2008년 인디음악이 인기를 끌면서 봉가봉가레코드의 간판격인 ‘장기하와 얼굴들’이 열풍을 일으켰다. 이 당시 미디어의 역할이 컸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역량이 70%라면 30%는 미디어 환경이다. 10대 때 인디음악을 듣고 자란 내 또래들이 각 미디어의 게이트키퍼 위치에 올라갔다. KBS와 네이버, 다시인사이드의 선택을 받아 성공하게 됐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기서 다시 시작됐다. 장기하와 얼굴들이 성공을 거두자 회사 수익이 3200% 성장했다. 이들이 휴직에 들어가니 나머지 8개팀의 수입이 5%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속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 회의감이 들었다. 다수의 변화는 특별한 소수에 의해 만들어진다. 현 음악 시장의 세 가지 문제점인 소비자의 수도권 집중, 창작자의 흥대 집중, 음악 수요층의 수적 한계를 극복해야만 했다. 그 돌파구로 내 고향 제주를 주목했다. 실력 있는 밴드들을 서울 바깥에



“올레길과 공연·강연이

이어지는 신개념 문화

투어를 기획하고 있다”

서 볼 수 있고, 흥대 뮤지션들이 바깥으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으며, 음악만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면 이것저것 섞어 복합적 콘텐츠를 내 놓으면 된다는 발상이었다.

이러한 발상으로 음악과 여행, 강연이 함께 하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 투어(Great Escape Tour)’를 구상하고 있다. 2박3일간 제주도 문화투어로 음악공연, 생태여행, 강연이 결합된 패키지 형태의 이벤트를. 이를 위해 제주출신인 박은석 음악평론가와 제주지역 인디레이블 부스뮤직컴퍼니의 부세현 대표, 그리고 제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움’, ‘넥슨’과 함께 기획했다. 이 제주문화 투어를 계기로 새로운 문화 플랫폼을 추구하면서 제주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싶다. 부산이 영화의 도시가 됐듯, 제주가 음악의 도시가 되길 바란다. 제주 출신의 문화인들이, 제주에 거주하는 문화인들과 손을 잡고, 제주 기반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주가 가진 자산을 살려내고 싶다.

성공을 바인딩 하라

강규형 3P 자기경영연구소 대표

나는 명문대가 아닌 지방대 출신이다. 게다가 학생운동하러 다니느라 학점도 좋지 못했다. 입사동기 352명 중에서 꼴찌로 입사할 정도다. 그래도 노력해서 1년에 3~4억을 버는 자리까지 올랐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종이에 적어야 한다. 머릿속이 아니라 종이에 적은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뤄지는 기적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세계의 백만장자의 공통점은 ‘자기관리가 철저하다’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내조 또는 외조를 잘해주는 배우자가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다. 큰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경쟁력이 ‘정직함’이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투명함’을 지녀야 한다. 정직함은 약간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위기때 빛이 나는 것이 바로 이 정직함이다. 체체술을 가르칠 때 단점을 숨기고 장점을 극대화하라고 한다. 오히려 부족한 걸 다 보여주고 드러내라. 단점까지도 일일이 보여줄 수 있는 투명함을 지녀라. 지각을 하더라도 차가 막혔다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늦잠을 자서 늦었으니 혼내달라고 말해라.

요즘 대학생들의 기록 문화를 보면 걱정스럽다. 미국의 유명 배우인 짐 캐리는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며 찌그러진 차 한대를 몰고 무작정 할리우드에 왔다. 처음엔 차에서 쪽잠을 잤다. 공중화장실에서 샤워하며 지냈다. 종이폭자에 출연료 ‘1000만 달러’라고 적은 수표를 5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다. 그리고 5년 뒤 그는 정확하게 1700만 달러를 손에 쥐게 됐다. 꿈을 단지 마음 한편

에 담아 두지 말고 종이에 적어놔야 그 꿈을 이루게 된다.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을 갖고 있는가. 학교에 다니면서 했던 과제물들을 가지고 있는가. 성공한 사람들은 대단한 메모왕이다. 대학생할 4년 동안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물이 곧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된다. 가령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도 어느 대학 출신인 것보다 그 사람의 준비여부가 중요하고, 일에 대한 열정을 평가한다.

여기 보여주는 바인더가 내가 오늘의 자리에 이르게까지 한 1등 공신이다. 이랜드에 근무할 때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플레너이다. 기록의 힘으로 기적을 일궈냈다. 일간·주간·월간·연간 계획부터 나아가 인생의 로드맵까지 차곡차곡 적었다. 각종 아이디어와 좋은 글귀 등도 한데 모아둬야 한다. 그렇다고 아무 종이에나 써서는 안 된다. 우리가 흔히 쓰는 A4 용지는 크기가 커서 반으로 접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읽기 어렵게 된다. A5 사이즈에 깔끔하게 적어두고, 이를 바인딩해서 모아둬야 한다.

분명한 목표 의식을 지녀야 한다. 꿈과 비전에서 눈을 떼지 마라. 최근 모 기업 간부가 경영 성과가 좋지 않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저명한 대학 교수도 연구소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국내 최고라는 카이스트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다. 수능 1교시가 끝나고 학생들이 투신자살을 한다. 꿈과 비전에서 눈을 떼는 순간 나의 부족한 현실과 약점을 보게 된다.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없이 눈앞의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다. 시기별로 목표관리가 중요하며 가족, 취업, 회사 등 각 부문별로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평생 목표를 잘 설정해 놓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목표를 세분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당장의 목표만을 쫓아서는 안된다. 1~



“부족함을 다 드러내고

단점까지 일일이

보여줄 수 있어야”

2년쯤 쉬면 어떤가. 취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취업이 안돼도 장사도 하고 여행도 해 보라. 할 것이 많다. 꿈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꿈은 가야할 곳이 아닌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식관리의 중요성이다. 모든 것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이를 통해 지식과 노하우가 매뉴얼화 되도록 정리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류 정리 등 편집이 잘 안된다.

내가 받고 싶은 연봉을 종이에 써서 1월부터 12월 매달 적었다. 대부분의 경우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주 평가를 했다. 달성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해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목소리 큰 것이 열정인가? 아니다. 지치지 않는 것이 열정이다. 지치지 마라. 끝까지 가라. 여러분 옆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다. 친구이자, 동료이다. 여러분의 경쟁상대는 하버드 학생들이다. 이들과 경쟁해서 이겨내야 한다.

‘박물관’ 새단장… 제주 역사·문화 한눈에

먼지털고 ‘햇빛’ 보는 유물 2만8000여점
4개 상설전시실… 다양한 기획전시도 준비



제주 바다를 전시해 놓은 제1전시실 중앙의 모습이다. 옛 제주인이 어패류를 잡을 때 쓰는 배와 그물이다.

박물관이 새롭게 탈바꿈한다. 기존 대학 본관 3층에 있던 박물관이 정문 입구 문화 교류관 2, 3층으로 옮겨 25일 개관한다.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개관식에는 허항진 총장을 비롯해 재일본 이대호 관동도민회장, 박국남 관서도민회 상임고문 및 학내구성원들이 참석한다. 행사는 △개관경과 보고 △테이프 커팅 △전시실 관람 등으로 이뤄진다.

박물관은 제주대학교역사관과 상설전시실 4개소, 기획전시실 1개소, 수장고를 운영한다. 1층에 위치한 대학역사관은 대학 설립과 발전, 미래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며 2층 전시실은 제주의 ‘바다, 땅, 사람’ 등 3개 주제로 꾸며졌다. 박물관은 이전과 함께 전시시설을 제대로 갖추게 됐다. 기존 본관 3층에서는 유물들을 제대로 전시·보관하지 못했지만 현재의 박물관은 5개의 전시시설과 많은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생겨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켰다. 따라서 박물관이 첫 문을 연 1967년 이후 45년 동안 수집한 2만8000여점의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관·전시할 수 있게 됐다. 박물관은 전시실마다 제주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갖고 유물을 전시한다. 제1전시실에는 제주의 바다를 소재로 전통선박인 테우, 각종 어로도구, 해녀문화 등을 전시한다. 전시실 구석에는 동자석이 있다. 제2전시실은 제주의 땅이라는 주제로 한 쟁기, 목축문화와 관련된 유물들, 사냥·수렵 도구를 배치했다. 제3전시실에는 제주사람

을 주제로 제주신화와 문예활동을 보여 준다. 중요민속문화재 240호인 내랏당 무신도 등을 처음으로 공개 전시하며, 제주의 국과 관련된 문화나 민화 등을 통해 옛 제주인의 다양한 생활모습을 알 수 있다. 상설전시실에 전시하는 유물은 박물관

소장 유물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남은 99%의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기획전시실을 만들어 매년 주제를 다르게 정해 그에 맞는 유물들을 전시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방문했던 관람객들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물관은 교육·연구·유물 보전과 관람객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홈페이지 개편, 새내기 대학생 대상 박물관 탐방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원 수업과 연계 등을 구상하고 있다. 박물관 내부뿐만 아니라 문화교류관 주변에도 유물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과학대학 앞에 있는 야외박물관처럼 꾸밀 생각이다. 벚꽃과 단풍 등 계절적 요소와 함께 제주대를 방문하는 도민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기관 선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인력인 학예사를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바로 유물 이전 문제다. 아직 대학본관 3층과 외국어교육원 지하에 있는 유물들을 다 이전하지 못했다. 무리하게 옮기다 보면 유물들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유물들을 잘 보존하면서 수장고 공사가 완료 되면 문화교류관 건물 안으로 다 옮길 예정이다. 박물관을 옮기면서 많은 문제가 해소됐다. 이제 박물관을 잘 가꾸기는 문제가 남았다. 새로 이전된 박물관이 어떻게 구성원들은 물론이요 도민이나 관람객들과 소통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동현 기자

100만 제주인 교류의 산실 ‘재일제주인센터’

생활상 재현 전시… 교육 연구 사업 진행
김창인 회장 ‘실천철학’ 계승 공간도 마련



재일제주인실은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제주인들의 역사와 생활기록 등을 간직한 유물, 재일제주인의 생활상 재현물, 재일제주인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영상시설 등으로 꾸며졌다.

재일제주인과의 교류의 산실이 될 ‘재일 제주인센터’가 드디어 완공을 눈앞에 뒀다. 재일제주인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2006년 이제는 제주인들이 고향의 각종 사업에 도움을 준 재일동포들에게 보답해야 할 때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검토 작업 착수 후 2010년 6월 15일 착공했다. 이후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5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본래 취지인 재일제주인센터에 박물관을 더해 ‘문화교류관’으로 이름 지어졌다.

재일제주인센터는 지하 1층 수장고의 일부와 지상 1층 재일제주인실, 김창인 회장 실천철학실, 연구원실, 행정실, 자료·전시실로 꾸며졌다. 수장고와 전시실 내부 인테리어까지 포함해 총 110억원(문화교류관 전체)의 비용이 투입된 가운데 재일동포 기업인인 김창인 회장이 30여억원을 쾌척해 건립됐다. 재일제주인실에는 그들의 역사와 생활기록 등을 간직한 유물과 재일제주인의 생활상 재현물, 재일제주인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영상시설 등으로 꾸며져 이들을 기억하는 매개체가 된다. 또한 김창인 회장 실천철학실은 재일제주인센터 건립에 큰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인생관에 있어 본받을 만한 김창인 회장의 실천철학과 그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자료·전시실에는 재일제주인들을 연구하기 위한 각종 연구서와 기록물들이 비치된다.

재일제주인센터는 앞으로 전시와 함께 재일제주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3, 4

와의 교류 사업에 돌입한다. 오는 9월 재일제주인센터 전시실을 열면서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의 발자취’를 주제로 제1회 특별전을 연다. 같은달에는 일본 현지 언어·역사·문화교육을 벌이는 재일제주인 아

카데미를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개최한다. 이 사업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5000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000만원을 지원한다. 10월에는 재일제주인센터 개관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내년 1월에는 재일제주인의 삶과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2000만원을 들여 해외 봉사활동도 기획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총서 발간 기념 사진전을 내용으로 하는 제2회 특별전도 준비하고 있다.

학술연구 사업도 활발하다. 앞으로 다문화, 제주학, 언어·문화 관련 학술대회 지원 사업을 벌이기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우선 중국 청화대학과의 상호교류 학술대회에 학술연구비를 지원했다. 또한 일본 학자들이 중심이 된 재일제주인에 관한 연구팀에 1000만원을 지원하며 연구총서로 재일제주인 사진집을 발간한다. 김창인 회장의 실천철학을 후학들에게 알리고 제주를 찾는 동포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벌인다. ‘김창인 실천철학’ 강의는 센터 내 세미나실에서 매달 1차례 연 12회에 걸쳐 운영하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도 연 4회 이상의 강의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학교방문 단체를 대상으로 한 강의와 자치단체 문화교육 강화와도 연계하여 강의한다.

지난해에는 전시관과 자료실에 비치할 자료를 도내·외에서 기증 받았다. 일본에서 사용한 물건, 일본에서 보내온 물건, 사진 등 재일제주인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 자료 3181점을 기증 받았다.

인터뷰 이창익 재일제주인센터장

“훌륭한 결실 맺어 재일제주인과 나뉘야”

“건물 완공을 통해 재일제주인과의 교류의 씨앗을 뿌렸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훌륭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창익(일어일문학과) 재일제주인센터장은 “앞으로 우리 센터가 재일제주인의 이민, 개척사를 연구하고 교류를 통해 재일제주인들의 정신을 기리는 산실이 될 것”이라며 “그들이 살아온 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물론, 고향을 잘 모르는 3, 4세대를 대상으로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참모습을 알릴 수 있는 언어·역사·문화교육도 현지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익 센터장은 “건물 건립에 큰 힘을 보태주었던 김창인 회장의 실천철학을 제주도민과 후학들에게 알리고 제주를 찾는 동포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일본에 있

는 고급 인적 자원을 발굴해 고향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또한 “재일제주인센터는 재일제주인의 업적을 기리고 그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주도해 나가겠지만, 학교 구성원은 물론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지금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인들의 귀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우리와 함께 담을 수 있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서점에 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주대 구내 서점은 단순한 책 전시장이 아닙니다. 대학인의 문화공간이며 정보화 문화 유통의 장소입니다. 제주대 구내서점은, 지식과 정보와 문화상품인 도서를 거래하는 만큼 손님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대학인들의 꿈이 이뤄지도록 제주대 서점이 힘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구내서점

문의 : TEL 754- 2383, 726-6035
FAX 726-6036
E-Mail book6035@korea.com

제주대인들의 특별한 숫자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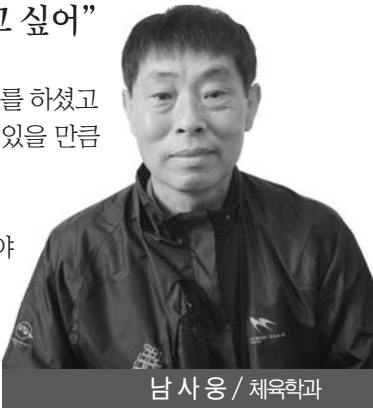


60세 교수

-제주대와 함께 60세를 맞으셨다.
“제 나이 올해 60이고, 또 제주대에 온 지 올해 딱 30년을 맞았다. 처음 제주대에 왔을 때만 해도 용담캠퍼스에서 아라캠퍼스로 갓 이전할 때라 어수선했던 점이 많았는데, 날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같이 나이도 먹으니 감회가 깊다. 앞으로도 교수들이나 학생들 모두 많이 노력해서 더 큰 발전을 이뤘으면 한다.”
-본인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현재 제주대 체육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

“세계적 선수 육성에 대학 빛내고 싶어”

치고 있다. 우리 집안은 큰아버지, 아버지가 선수를 하셨고 저를 비롯한 5형제 모두가 체육 관련 일을 하고 있을 만큼 체육과 인연이 깊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는.
“그간 체육학과는 육상, 수영, 태권도 등의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앞으로 나는 골프 선수 육성에 힘을 쏟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인재를 많이 배출해 내서 제주대를 빛내고 싶은 바람이다.”



남 사 응 / 체육학과



“해동검도 보급 활동에 최선”

-동아리를 간단히 소개해 달라.
“‘해동무사’ 동아리는 민족 전통의 해동검도를 배우기 위해 모인 학생들로 이뤄졌다. 15명 정도의 인원이 함께 해동검도를 수련하고 있으며, 친목도 도모하고 있다.”
-점점 쇠퇴해 가는 동아리 문화에 대한 견해는.
학생들이 취미 활동에 전보다 소홀해진 게 아닌가 싶다. 동아리들끼리 서로 뭉쳐 공연을 기획하는 등 학생들이 모일 만한 계기를 많이 마련했으면 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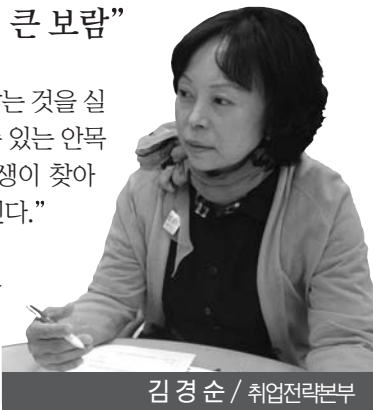
겠다.”
-앞으로 동아리의 운영 방향은.
“우선 공연을 선보이는 것을 생각 중에 있다. 운동은 여태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할 계획이며, 친목 활동 위주로 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60주년을 맞은 데 대한 소감은.
“이제까지 해왔던 것만큼 앞으로도 잘해나갔으면 좋겠다. 학생들 역시 공부만이 아니라 자기 흥미 쪽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60번째 설립 동아리 회장

60년생 직원

-언제부터 제주대에서 일하게 됐으며, 지금 맡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
“고등학교 졸업 후 행정실에서 근무하다가, 여직원 회장을 맡게 된 계기로 상담 쪽에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상담 전문가를 삶의 목표로 정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관련 공부를 했다. 현재는 제주대에서 상담과 관련된 학생생활연구소 업무, 취업전략본부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일해오면서 느낀 점은.
“제주대에서 일해오면서 나 자신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

다. 학생들을 만날 때 점차 내면적으로 가깝게 닿는 것을 실감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상담했던 학생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특히 큰 보람을 느낀다.”
-60주년을 맞아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달라.
“나 자신이 성장한 만큼 제주대도 많은 성장을 이뤘다. 제주대가 가진 환경이 좋은 만큼, 학생들에게 있어 앞으로도 더 배움이 즐겁고 취업도 잘 되는 대학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김 경 순 / 취업전략본부

“학생상담 업무에 큰 보람”

“장애인 도우며 봉사 참 의미 깨달아”



김 동 영 / 경영정보학과 2

-어떤 봉사활동을 주로 했다.
“첫 봉사활동이 장애인 시설에서였다. 그 뒤 주로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보조나 장애인들의 산책이나 목욕을 돕는 일 등을 주로 했다.”
-6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장애인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분이 공연을 보면서 기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설명하기 힘든 기쁨을 함께 느꼈다.”
-봉사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남에게 배운 만큼 언젠가는 자신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한다. 그와 함께 아낌없이 베풀었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개교 60주년을 맞아 제주대에 하고 싶은 말은.
“기쁘고 자랑스럽다. 제주대가 다른 대학들보다 더욱 앞서 나가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김소영 기자

60시간 봉사 활동한 학생

인터뷰 김동주 KBS 제주방송총국장/제주대신문 동우회장

“제주대, 특성화만이 살 길”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 줄 사람. 그 어떤 선후배도 없었다. 간혹 제주 출신을 만날 수는 있었으나, 대학후배들을 만나기는 어려웠다. 타지에서의 외로운 길. 그러나 ‘언론인’이라는 자신의 길을 곳곳이 걸어온 김동주(행정학과 74학번) 동문. 개교 60주년과 제주대신문 창간 58주년을 맞아 언론인이자 동문으로서 바라보는 제주대의 오늘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어디에든 길은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너무 스펙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불리하다 생각하는 그 스펙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김동주 동문은 1974년 용담캠퍼스에서 행정학과에 입학해 1982년 아라캠퍼스에서 졸업했다. 대학시절 제주대신문 편집장을 지냈고, 1981년 KBS 제주방송총국 기자로 입사했다. 지난 30년 동안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언론인으로 활동한 그는 지난 2010년 제주방송총국장으로 임명받았다. 그리고 이제 2년의 임기를 마치며, 다시 제주를 떠난다.

개교 60주년을 맞은 인터뷰에서 김 동문은 제주대와 제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줬다. 그는 지난 60년 동안의 제주대의 성과를 “나라와 지역사회를 이끈 인재 양성에 있다”고 밝혔고, 과제로 “제주의 환경적 요소를 더욱 심화한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교 60주년을 맞았다. 동문으로서 제주대의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다.

“제주대 없이 제주를 상상하기 어렵다. 지난 60년 동안 제주대는 다양한 방면에서 나라와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상당한 몫을 해냈다. 수많은 동문들이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여러 공직과 기업 등에 진출했다. 제주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측면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대학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연계한 특성화를 통해 더욱 발전해야 한다.”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다면.
“제주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

화가 필요하다. 우선, 제주의 바다를 바탕으로 한 해양학과 아열대 기후를 이용한 농업, 원예 등의 분야를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라산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가 부족하다고 본다. 약용식물이나 자생식물 기반의 원예 분야를 특성화 시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아울러 경남대의 북한대학원과 같이, 제주대에 우리나라 유일의 특성화 대학원을 만들어야 한다.”

-창간 58주년을 맞은 제주대신문이 나아갈 길은.

“제주대신문은 지난 58주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은 언론인을 배출해 냈다. 대학사회에서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역할을 해왔다. 상대적으로 멀티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시대. 그러나 앞으로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을 조화시켜 나간다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제주대가 해야 할 역할은.

“최근 KBS제주총국은 ‘제주 큰 곳’의 전 과정을 기록한 영상 자료를 제작했다. 재현보고서를 냈다. 열댓채가 걸리는 시간과 비용으로 재현이 어려웠던 작업이었다. 재현에는 총 8명의 심방과 도내의 여러 학자, 사진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언제 맥이 끊이지 않는 제주의 문화를 기록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하나의 텍스트일 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가공하고 키우는 작업을 해야 가야 한다. 언어학이나 문화인류학, 민요 등 제주지역만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 속에서 제주대는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하겠다.

“대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갈등 속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속도로 가야 하는지 대학이 제시해야 한다. 현재 일어나는 제주사회 속의 문제를 객관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정서로 풀려는 경향이 많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 대학이 객



관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제시하고, 체계화시켜야 한다.”
-당시와 오늘날의 대학시절을 비교한다면.

“대학시절 영어나 학과 공부에만 매달리기보다 대학신문사 활동,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독서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즉, 폭넓은 공부가 나를 언론인의 길로 이끌었다.”

오늘날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나 폭넓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국 사고의 폭이 줄어들었다. 논리력과 기획력, 종합능력 등과 같은 사회에서 정작 필요한 능력이 떨어진다. 그 시절과 오늘날의 대학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취업이 어렵다. 대학과 학생 모두가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우선 대학이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진입하기 위한 방안을 내야 한다. 취업반과 같은 것을 만들어 진입장벽이라 볼 수 있는 영어, 논술, 면접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해마다 50여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은퇴한 동문 및 교수들이 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이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사회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필요하게 되는 국어능력을 키워야 한다. 조리있게 정리하고 발표하는 능력,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치와 사회, 경제 등의 다방면에 걸친 공부도 해야 한다. 논리적인 사고로 종합하고 기획, 창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박종건 기자

청정 제주의 화산암반수로

깨끗함의 차이를 느끼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소주는 동일한 원료(주정)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소주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물!

한라산 소주는 세계적인 화산암반수와 5년이상 숙성된 증류주 원액으로 만든 품격이 다른 프리미엄 소주입니다.

(주)한라산

SINCE 1950 www.hallasan.co.kr

*참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에 사고 발생율을 높입니다.

한라산 소주는 1950년 창립이래로 100% 순수향토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0억원 사회환원으로 도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제 주 대 신 문 머 릿 기 사 로 보 는

제주대가 걸어온 60년의 길



1952년 5월 27일, 독립 제주초급대학으로 출발한 우리 대학이 환갑을 맞이했다. 또한 1954년 5월 27일 개교 기념일에 제주대신문이 창간됐다. 제주대신문은 제주대학교의 역사와 함께 했다. 대학이 팔복상대하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 대학문화가 꽃피는 순간, 학생들의 열정이 끓어오르는 현장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왔다. 제주대신문 머릿 기사를 통해 당시 시대의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제주대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아본다.

전문은 제주대미디어(news.jejunu.ac.kr)에 있습니다.

1950년대

: 제주초급대학, 독립 4년제 대학으로 승격

제대신보 제2호(1954년 12월 6일자)에는 '고급대학으로 승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문교부의 인가로 독립 제주초급대학이 1952년 5월 27일 문을 열었다. 제주초급대학으로 대학의 문이 열렸지만 필요한 교육시설을 확보하는데 힘들었다.

이에 제주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1953년 8월부터 4년제 국립대학으로의 승격을 추진했다. 제주대학후원회와 제주초급대학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승격 인가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그 해 10월 30일 '제주대학 승격 인가신청서'를 문교부에 제출했다. 몇 번이나 제출했지만 문교부는 승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문교부는 학교시설을 제주도에서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국립대로의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이 또한 부결되고 우여곡절 끝에 국립대학은 포기하고 1955년 4월 6일 2년제 제주초급대학은 4년제 독립 제주대학으로 승격됐다.

한편 4년제 독립대학으로 승격됐으나 제주도의 재정사정이 빈약해 제대로 투자되지 못해 대학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제주대와 제주도 당국은 대학발전을 위해 국립이란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감했다.

당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돼 현실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4·19혁명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국립이관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5·16군사정변 후 김영관 해군준장이 제주도를 방문해 국립이관 문제에 공감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시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국립이관의 꿈이 이뤄지게 됐다.

1960년대

: '대동제'의 호시 제1회 대학제전 열려

제대신보 제17호(1963년 4월 28일자)에는 '제1회 대학제전-연극발표회 등 계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톱뉴스에 올랐다. 개교 11주년을 맞이해 학생회에서 기념행사로서 제1회 대학제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사는 "이번 제1회 대동제에는 전반기 모든 행사일정을 여기에 집중시켜 종합적이고 보다 큰 규모의 행사를 마련하고자 계획된 것"이라 보도했

다. 초급대학 시절부터 학도호국단(학생회의 옛 이름)이 개교를 기념해 행사를 가졌다. 1953년 5월 27일 개교 1주년 기념 '푸른산맥'을 공연한 데 이어, 1954년 개교 2주년 기념행사로 '뇌우(雷雨)' 공연이 이뤄졌다. 또 학도호국단은 1954년부터 전도 고교배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전도 고교배구대회, 문학백일장, 웅변대회 등을 산발적으로 열었던 것을 개교 11주년 기념일인 1963년 5월 27일부터 4일 동안 제1회 대학제전이 열렸다.

한편 1964년 개교기념 행사 종목을 다듬고 '대학 축전'으로 이름을 바꿔 축제를 치렀다. 이듬해부터 축제 이름을 다시 바꾸게 됐다. 대학 축제의 개성이 부각되지 못했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1965년 5월 25일부터 5일 동안 열린 축제부터 '웅연제'로 이름을 바꿨다. 이는 웅담캠퍼스(지금의 제주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웅이 살던 못이라는 뜻을 가진 관광지인 '웅연'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후 1972년에는 '웅연축제', 1981년에는 '아라축전'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으며, '아라대동제'는 1991년 축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 학생회 해체... 학도호국단 편성

제대신보 제138호(1975년 12월 10일자)에는 '학도호국단 자체검열 실시-국사방위의 일익담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1면 톱뉴스에 올랐다. "본대학 학도호국단 자체검열이 지난 11월 29일 문교부 학사담당관실 김정길 서기관 및 본대학 김계용 학장을 비롯 다수의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운동장에서 열려 배우면서 나라를 지키는 호국학도들의 능률하고 웅대한 투지를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학도호국단은 1975년 5월 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선포되고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도호국단 설치령이 의결되면

서, 6월 7일 대통령령 제7645호가 공포됨에 따라 대학에 학도호국단이 설치됐다. 학도호국단의 설치 목적은 범국민적 국가안보의 개념을 학원에까지 심어 총화단결을 도모하고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함은 물론 나아가 대학의 질서와 체제를 국가안보에 맞춰 유사시에 학생을 동원할 수 있도록 전력화하는데 있었다. 학도호국단이 4·19혁명 직후인 1960년 5월에 해체된 후 15년만에 부활된 셈이다. 호국단은 발단식을 가져 '배우면서 지키는 호국학도'로서의 사명을 다짐했다. 1960년 8월 8일에는 학도호국단 발족에 따른 학칙개정이 있었다. 이어 11월 29일에는 제1회 자체검열을 가졌다.

1980년대

: 오랜 숙원 '종합대학교'로 승격

제대신보 제188호(1980년 3월 10일자)에는 '18년만에 종합이설 완료-아라발에 새역사의 장 열려'라는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뤘다. 1980년 3월 4일 교무과, 학생과, 서무과 이전을 끝으로 서귀포에 있던 농수산학부와 제주시 웅담에 위치했던 농수산학부가 아라캠퍼스 한곳에 모였다. 캠퍼스 종합이설은 1972년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시작됐다. 1974년 부지를 매입했고, 1976년에는 이전기본사업계획사업이 확정되면서 1977년에는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1970년대 중반 캠퍼스 통합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제주대 구성원들의 종합대학교 승격 문제에 대한 관심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1978년도부터는 문교부에 정식으로 종합대학교 승격을 건의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제주대학이 종합대학교로 승격돼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부 도민들 역시 이에 공감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 문교부의 퇴짜에 대학구조를 쇠신해 나간 끝에 1981년 7월 31일 드디어 문교부는 1982년 3월 1일부터 종합대학교로 승격시키겠다고 통보해왔다. 이는 제대신보 제201호(1981년 9월 14일자)에는 '제대인의 숙원 이뤄-지난 7월 28일 종합대승격 발표'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온 제대인은 물론 45만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본 대학의 종합대학 승격이 지난 7월 28일 문교부에 의해 확정 발표됐다"며 "이번 종합대학 승격은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계기가 된다"고 평가했다.

1990년대

: 총장 선거방식 등 대학제도 자리잡아

제대신보 제472호(1993년 4월 27일자)에는 '투표방식, 단기명제 채택 확실'이라는 기사가 톱뉴스 자리에 올랐다. 기사는 "총장선출방식이 종전의 교황선출방식에서 사전 입후보자 등록에 의한 선출로 확정된 가운데 교무처에서는 지난 4월 6일

부터 20일까지 15일 동안 총장임명 추천에 관한 규정에 대해 각 단과대학별로 의견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의견수렴 결과 모든 대학에서 투표방식을 단기명제로 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져 1993년 5월 3일 열린 학무회의와 5월 7일 평의원에서 단기명제로 최종 확정됐다.

2000년대

: 비운동권 학생회 탄생... 교육대학교 통합

제대신보 제608호(1999년 5월 4일자) 1면 헤드라인뉴스는 '졸업자격, 외국어 전산능력으로 평가' 기사였다. "9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외국어 및 전산능력으로 졸업을 인정하는 졸업자격 인정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졸업자격인정제는 지난 2월 27일 개정된 '제주대 학사관리에 대한 규정' 제5조 9절 56항 '졸업을 하는 자는 일정 수준의 외국어 및 전산능력을 의무적으로 갖추어 졸업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0년대는 비운동권 학생회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학생운동이 거시적인 쟁점보다는 취업, 학생복지와 같은 미시적인 쟁점으로 옮겨갔다. 제대신보 제630호(2000년 5월 16일)에는 '한총련 탈퇴 논란'이 헤드라인 뉴스에 올랐다. 기사는 "총학생회(회장 김성철)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한총련 탈퇴'가 단과대와 의견차찰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총련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줄임말로 대학 운동권을 대표해온 단체이다. 학생들의 탈정치화는 시대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충족시켜나가는 자리인데 개인적인 문제로만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한편 제주교대 일부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주교대-제주대 통합이 이뤄졌다. 제주대신문 제794호(2008년 2월 21일자)에는 "제주대·제주교대가 국립대학교설치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 통합이 최종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또 2000년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제주대에 들어선 시기이기도 하다. 제주대신문 제804호(2008년 9월 3일자)에는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2007년 7월 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3년제 석사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이 확정됐다.

김명지 기자



총장투표방식, 단기명제 채택 기사



한총련 탈퇴 기사



제1회 대학제전 개최 기사



종합대학 승격 기사



학도호국단 자체검열실시 기사

*참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율을 높입니다.

한라산 소주는 1950년 창립이래로 100% 순수향토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0억원 사회환원으로 도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제주대 3대 동문 가족 고성하(1대), 고영종·오경숙 부부(2대), 고상아(3대)

3대가 모두 교육자의 길을 걸어



제주대 3대 동문 가족.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오경숙, 고영종, 고상아씨. 오른쪽 사진은 1대 고성하씨.

3대에 걸쳐 4명의 가족이 제주대를 졸업하고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어 개교 60주년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고성하(1대), 고영종·오경숙 부부(2대), 고상아씨(3대). 이들은 한 가족이다. 모두 제주대 동문이면서 교육자이다.

오경숙(영어영문학과 1985년 졸업, 제주대 기획평가과 근무)씨의 시아버지 고성하씨는 교육대학의 전신인 도립 제주사범학교를 졸업해 귀덕초등학교 등에서 교직생활을 보냈다. 남편 고영종(수학교육과 1983년 졸업)씨는 현재 한림여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또 딸 고상아(초등영어교육전공 2011년 졸업)씨는 현재 서귀북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1대 동문 고성하씨의 아버지 역시 교육자였다. 고영종씨는 “어린 시절부터 존경받는 훈장인 할아버지,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아버지를 보면서 흔들림 없이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다”고 말했다. 고영종씨의 작은 아버지 역시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데 제주대가 공간을 마련해주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고영종씨는 “육지 대학에 진학할까 생각도 했지만 고향에서 아버지처럼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제주대에 진학하게 됐다”고 말했다. 3대 동문 고상아씨도 비슷했다. “내가 다니던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에 제주대에 진학해 꿈을 키워나갔다”고 말

했다.

고성하씨는 아들 영종씨가 제주대에 진학하니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한다. 고성하씨는 “아들이 같은 대학의 동문이라니 감회가 새로웠고 아들이 대견했다”고 말했다.

고영종씨는 아버지처럼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입학한 대학에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전공인 교육학,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동력회라는 동아리활동도 열심히 했다. 고영종씨는 “학창시절 동려야 간학교에서 순수한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다”면서 “그 시절이 지금도 그림고 그 기억이 교직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자양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고영종씨는 동려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내 오경숙씨를 만났다. 고영종씨는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교육봉사를 하다 보니 그 모습에 반했다”고 말했다.

오경숙씨도 대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추억을 쌓았다. 오씨는 “1981년 입학할 때 아라캠퍼스로 이전한지 얼마 안 된 때라 학생들이 모여 같이 나무도 심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또 “신입생활영 체육대회, 한라산 여러목에서 했던 1박 2일, 모꼬지(MT) 등이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대학에 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지만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한다. 오경숙씨는 “다른 전공분야의 공부도 해보고 싶고 당시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해외 배낭여행, 문학동아리에 가입해서 많은 책도 읽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고영종씨는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대견하다는 생각을 한다. 영종씨는 “기성세대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모습이 좋다”며 “자신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스펙을 쌓는 모습, 외모를 가꾸는 모습을 보면 나도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딸 고상아씨의 생각은 달랐다. 상아씨는 “나도 그랬고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다”며 “취업을 위해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취업에 너무 매달리는 것보다 진짜 자신을 위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대학생들에게 조언했다.

고영종씨는 지금 대학생들에게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앙드레 말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한다. 그는 “취업문제 등 대학을 다니면서 본인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큰 꿈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도립 제주대학 제1회 졸업생 고시수 동문

“대학시절의 소중함… 두번 다시 없으리”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박목월, 「나그네」
힘든 조국의 현실에서 체념과 달관으로 유유자적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담아낸 박목월의 시, 「나그네」. 이 시가 인생이 된 사람이 있다. 제주대 1회 동문 고시수(1957년 도립 제주대학 영문과 제1회 졸업생)씨이다.

고씨는 서귀포시 강정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목포로 올라갔다.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학을 다니다 6·25전쟁이 터져 고향 제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제주대 영문과에 편입했다.

“전쟁이 터져 고향에 내려오게 되서 안타까웠지. 젊은 시절 꾸던 꿈을 내려놓게 됐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박목월의 시처럼 초연해지게 됐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교육자라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고 이 길을 걷게 된 거지. 후회는 없어.”

고씨는 학교에서 임시강사(지금으로 치면 교생)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회를 얻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더욱더 공부하게 되고 이를 더 잘 가르치고 싶다는 고민을 했었다. 그때 교육자의 보람을 느끼게 돼 지금에 이르게 됐다.

고씨는 대정고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해 대정여고 교감 등을 거쳤다. 바쁜 교직생활 중에도 대학원에 진학해 ‘학생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다. 1998년 8월로 학교를 떠날 때까지 그의 고민은 계속됐다. 그의 고민은 그의 아들, 딸들이 이어 받았다.

“나는 애들이 교육자의 길을 걷기 바란 건 아니었어. 내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란 걸 알게 되어서 따라온 거지.”

초등학교 교사, 대학교수가 된 자식들은 또 교사인 부인을 만나면서 지금의 교육자가문을 이루게 됐다.

“내가 제주대에 편입하게 돼서 교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지. 나쁜 만이 아니라 제주대는 제주도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준 한줄기 빛이었던 거야.”

그의 둘째 아들, 그 아들의 손자도 제주대 동문이다. 아들 세룡씨는 84년 해양학과를 졸업했다. 손자 수훈씨는 식품공학과를 2010년에 졸업했다. 3대가 모두 제주대 동문이다.

제주대학이 생기기 전 많은 제주도의 젊은이들이 상경했다고 한다. 지금도 제

주도와 육지 사이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오죽했을까. 제주도 학생들은 상경해 대학을 다니는데 경제적, 정서적으로 힘들었다. 제주대학이 생기니 제주도 청년들이 육지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졌다. 제주도 청년들이 편하게 공부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공부하는 데 있어 힘든 점도 많았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학생들도 별로 없었지만 교수 수도 부족했어. 교수 한 분께 거의 모든 수업을 받을 정도였어. 용담 캠퍼스 시절에 제주대를 다녔는데, 용담앞에 있었던 창고 강의실에서 문학창작강의 시간이 대학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아. 시에 대해 배우면서 바로 앞에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어.”

“용담동 창고 강의실에서 앞에 펼쳐진 바다를 보며 문학적 감수성 키워”

다들 보며 문학적인 감수성을 키워나갔지. 그때 읽었던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를 잊을 수 없어.”

고씨는 열약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공부도 마음껏 해보고 추억도 많이 쌓았다고 말한다. 고씨는 요즘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측은해진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절에는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학생들이 취직을 쉽게 할 수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



“제주대학이 제주청년들의 꿈을 키워주었다”고 말하는 고시수 동문.

아. 손자도 제주대를 졸업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손자 또래 학생들에게 취업이 가장 우선순위에 걸췌려 보여. 학생들이 취업에 매몰되다 보니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과 교양을 과소평가하고 있어. 이들이 취업을 하기 전에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본인의 특성을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지.”

요즘 학생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고씨는 요즘 대학생들이 부러운 점도 있다.

“젊은이들을 보면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과 정말 달라. 요즘은 자유분방하지. 자유롭게 자신의 취미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 정말 부러워.”

그러면서도 그는 학생들이 자유분방함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 대해 잘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아 걱정했다.

“대학시절이 두 번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지.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고민해보고 가치관을 잘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

김명지 기자



원 내는 고시수씨의 대학 졸업앨범 사진. 큰 사진은 고씨의 가족사진으로 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가 고시수씨.

열정과 도전을 응원하는 상상커뮤니티

KT&G 상상univ.

상상class

문화예술분과

CONCEPTION

맡았 상상하고 도전하라!

KT&G 상상univ.의 문화예술 분과 프로그램은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한 대외활동을 프로그램입니다.

무지스쿨

상상 라이브밴드 클래스 상상 밴드활동의 특별한 무대를 위해, 실력보다는 열정으로 똘똘 밴드 클래스
상상 세션 멘토링 클래스 인디밴드 뮤지션의 세션(기타/베이스/보컬)튜터링 클래스

댄스스쿨

상상 댄스 품치 탈춤 클래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현역 댄서들의 특별한 안무 레슨 클래스
상상 댄스 프로젝트 클래스 이제는 댄스 공연에 도전, 하나의 퍼포먼스를 배워 멋진 무대! '가드'는 클래스

사진스쿨

상상 디카와 놀기 클래스 프로 사진가의 강의를 듣고 스튜디오 실습을 경험할 수 있는 클래스

영상스쿨

상상 마켓 영상 만들기 클래스 스마트폰, 디지털로 나만의 특별한 영상 제작에 도전해보는 클래스

액팅스쿨

상상 뮤지컬 감리 클래스 노래와 안무로 상상univ.만의 특별한 무작품을 구성하여 갈라쇼에 도전하는 클래스

Culture+

상상 바리스타 클래스, 상상 파티플레이너 클래스, 상상 디제잉 클래스, 등

대학생들의 다양한 이슈와 문화트렌드를 배우고 경험해보는 전방위 문화클래스

마케팅분과

CONCEPTION

상상으로 세상을 마케팅하라!

KT&G 상상univ.의 마케팅 분과 프로그램은 마케팅 지식과 역량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상 마케팅스쿨

-현업 마케팅 실무자 중심의 생생한 마케팅 강좌
-활발한 토론과 پرس스형 토론 마케팅 실전연습
-팀, 지역별 활동을 통한 대학생 마케팅 네트워크 형성

상상 MR

-리서치 전문가와 함께 마케팅 조사와 기법적인 이론부터 실무경험까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케팅 조사 방법론 교육(이론)-마케팅 조사 미션 수행(실습)

취업분과

CONCEPTION

상상으로 꿈을 펼쳐라!

KT&G 상상univ.의 취업 분과 프로그램은 예비 사회인 대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봉사분과

CONCEPTION

더 밝은 미래를 상상하라!

KT&G 상상univ.의 봉사분과 프로그램은 KT&G와 대학생들이 펼쳐나가는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상상friends]

CONCEPTION

KT&G 상상univ.대학생 기획단

대학생의, 대학생들을 위한, SMART한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기획하는 KT&G 대학생 기획단입니다.

상상class

상상JOY

-KT&G 직원과 함께하는 취업 스테디 커리어 프로그램
-KT&G 직원이 멘토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전략과 노하우 공유 (자기소개서 피드백, 모의면접, 실무진 특강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 제공)

상상job schooling

-대학생들이 취업 전 마케팅-영업현장을 실질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고안된 노동부-KT&G 연계 프로그램
-KT&G 전국 지사 지정에 배치되어 영업사원과 함께 실무를 경험

상상volunteer

열린 봉사

-KT&G 임직원과 함께 참여하는 봉사 프로그램

정기 봉사

-참여 대학생들이 수혜자의 needs에 맞는 자원 기부로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신개념 봉사활동

상상 green diary

-국내 열연초 농가를 방문하여 당배알 수확 및 건조작업을 돕는 KT&G만의 독특한 농촌봉사 프로그램

상상friends]

-밴드공연, 상상파티, 캠퍼스 마켓 등 상상univ.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해커펀

-상상univ.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매월 문화활동비 지급 및 지역별 우수 상상friends] 선별과 시상
-수료증 지급 및 우수자 해외 문화 탐방

상상univ. 홈페이지에서는 KT&G 상상univ.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참여회원들 간의 커뮤니티 활동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상상editor

CONCEPTION

KT&G 상상univ.대학생 취직

상상univ. 소식과 대학이 이슈를 취재하고 정의적인 콘텐츠로 공유하는 KT&G 대학생 취직단입니다.

상상univ. 멤버십

CONCEPTION

SMART한 대학생들을 위한
풍성한 상상univ. 멤버십 서비스

상상아틀리에

CONCEPTION

상상을 응원하는 공간!

화가, 공예가, 사진가 등 아티스트의 작업공간을 의미하는 "아틀리에"는 KT&G와 대학생이 만나고, 상상을 공유하는 열린공간입니다.

상상editor

-상상univ. 소식과 대학이 이슈 취재 및 기사 제작
-상상univ.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공유

해커펀

-매월 문화활동비 지급
-상상editor 수료증 및 기념품 지급

상상univ. 멤버십

-온라인 및 전국 대학가 주변에서 상상univ. 회원만이 누릴 수 있는 막강 서비스
[온라인 제휴: 5~20% 할인과 쿠폰으로 손쉽게 이용하는 혜택
지역별 제휴: 전국 제주시 매장에서 멤버십 카드 제시 시 현장 할인 혜택]

*상상univ. 멤버십의 다양한 제휴처와 브랜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상상아틀리에

상상을 응원하는 공간! 열정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상상univ.만의 특별한 아티스트 "상상 아틀리에"

공간 구성

1번가	강의연습실	4번가	댄스연습실
5번가	밴드연습실	8번가	세미나실
20번가	합연실	35번가	스튜디오
45번가	댄스/밴드 연습실	후계실	상상홀&라

www.sangsanguniv.com

인터뷰 ‘3선 국회의원’ 김우남 동문

“사명감과 열정으로 제주의 1% 한계 뛰어 넘어야”

19대 국회에 ‘3선 의원’으로 입성한 민주통합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 경영학과 25회 졸업 동문인 김우남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모교 출신으로 첫 당선됐으며, 이후 18·19대 등 내리 3선에 당선됐다. 김우남 의원은 지난 2006년과 2010년 능협이 우리 대학에 발전기금 50억원을 출연하는데 숨은 기여를 한 것을 비롯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설치 등 동문으로서 대학 현안 해결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보였다.

이번 19대 당선으로 우리 대학 동문 국회의원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립 제주대학교와 철학을 같이하는 보다 한 차원 높은 동반자 관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제주대신문>은 우리 대학의 현안 문제들을 공감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김우남 국회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김우남 동문은 “살아오면서 힘에 부친적도 있었고 주저앉고 싶은 유혹도 많았지만, 그 때마다 다시 일으켜 준 건 ‘제주대학교 출신 국회의원 1호’라는 사명감이었다”고 말했다.

-대학시절은 어땠는지 궁금하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했다. 때 순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대학 생활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하며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 윌리엄 브루스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했다’는 말처럼 도전정신은 한계를 뛰어 넘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대학시절 도전정신을 가지고 늘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나를 열심히 생활했던 것 같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오랜 시간 지역에서 주민들과 호흡해 왔다. 그런 이유로 도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도의원 시절부터 줄곧 농수산 관련 상임위를 고집해 왔기 때문에, 제주도의 1차 산업에 대한 애정과 전문성을 키워 올 수 있었다.

또한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남자의 의리, ‘한번 문제의식을 느낀 상황에 관련해서는 끝을 본다’는 독신과 강한 추진력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인간적인 정이 많아, 맺고 끊음이 분명할 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처음 뵈는 분들에게는 더욱 살갑게 다가 가야 하는데, 아직도 전형적인 제주남자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반칙과 특권이 아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원한다. 또한 우리들은 그 희망을 뒷받침할 조금 더 진보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 이를 실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정된 고용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제주지역의 경우 각종 투자 및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주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재의 도외유출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지역인재 고용정도에 따라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제주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국립대를 국가에서 분리해 예산은 물론, 조직·인사 전반에 걸쳐 대학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인 국립대 법인화가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 및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대학의 운영 및 재정의 자율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결국 등록금인상과 대학서열화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신입생 유치 경쟁 등 지금 제주대는 대학 발전의 역사적 갈림길 위에 서 있는 만큼 확고한 발전목표와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학과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시설 및 교육재원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청년들의 투표권 행사도 무척 중요하게 애기된다. 참정권으로서의 의무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목소리 반영 차원에서도 소중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이다. 청년정치가 정치개혁을 위한 시대의 부름이라고 할 정도 2012년 시대정신의 흐름 중 하나라고 본다. 2030 청년 세대의 정치세력화는 디지털 혁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012년 민주통합당이 시도하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제게 주셨던 사랑의 무게만큼 저의 모든 것을 제주발전에 바치겠다. 현재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세대교체, 지역배려, 세력균형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연합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총단결체제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저 역시 제주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된 만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비대위의 최대역할인 공정한 지도부 선거관리, 다음달 9일까지의 원활한 당무관리, 19대 원구성을 비롯한 언론사파업과 이명박 정권 측근비리, 불법대선자금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강력한 대여투쟁을 이끌어 나가겠다.

특히 한미, 한중 FTA를 막아냄과 동시에 제주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와 더불어 구도심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자치재정의 확충, 해군기지 문제해결, 지방재정의 위기극복, 신공항 조기건설 등 제주의 현안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무척이나 바쁜 일정에 시간을 내주어 감사하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학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우선은 정치인으로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죄송함이 앞선다. 더불어 치열한 취업전쟁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행의 조인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다만, 어려운 취업관문에서 있더라도, 자신이

대학시절 도전정신 갖고 다양한 경험 쌓으며 열심히 생활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정권교체 위한 밑그림 제시

국회의원 중 유일한 제주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최선

는 청년정치는 청년문제, 청년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이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제도 SNS를 활용해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통의 무기로서의 SNS의 효율성에 감탄하고 있다. 규제보다는 SNS를 통한 보다 자유로운 소통의 보장,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3선 의원으로서 큰 역할을 약속했다. 당내 역할이라든지 국회 내에서의 활약 등 구상하고 있는 일에 대해 밝혀 주신다면.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쯤은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의 인재가 지역을 위해 일하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여러분의 준비된 역량이 제주의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취업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의 영구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지역인재 할당제와 인센티브 제공, 지역인재 고용 시의 인센티브 및 교육 지원금 제공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실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제주대학교 60년사 편찬의 의의

테마별로 60년 대학사 한눈에

1952년 출범한 우리 대학교는 올해로 60주년을 맞게 되었다.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은 개교 60주년과 종합대학 승격 30주년을 기리기 위한 축제와 기념사업들을 기획해 왔다. 우리의 위상과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학술행사 및 문화체육행사, 전시·공연행사, 대외행사 등을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60년사 편찬 사업도 지난날을 돌아보고 갈 길을 밝히는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우리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 추진해 왔다.

2010년 9월 10일 15명의 편찬위원회를 위촉하여 위원회 활동을 해 왔다. 위원회는 역사 편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편집위원회를 구성, 집필과 간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회의록을 거듭하며 기존의 편년체 서술에서, 60년사에서는 주제별 기술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여러 차례 회의와 논의 끝에 구체적인 집필을 위해 분야별 세부항목을 정한 후 집필위원 선정과 집필 항목들을 심의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확정하였다. 원고 집필은 위원들의 전공을 고려하면서 영역을 정하고 각 편별로 집필을 위촉하였다. 집필중 추가로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별도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 초안이 작성된 후 편집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와 윤문 과정을 거쳐지면서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체 체계를 통일하려고 하였다. 꼭 필요한 자료들은 발굴하거나 새로 생산해서 보완했고, 이미 생산된 자료들 중 완성도가 떨어지는 자료들은 과감히 버리기도 하였다. 각 편별로 기술 체계와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편 체제와 조직에서는 대학 체제의 변화와 학과·대학의 확대 과정을 보여준다. 단과대학과 학과의 연혁을 밝히고, 대학 거버넌스의 변화, 대학 재정과 기성회, 부속시설과 연관 법인의 변화 과정 등의 제적을 서술하고 있다. 제2편 공간과 시설에서는 우리 대학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 부분을 기술하였다. 제3편 교육 활동에서는 초창기부터 현재까지의 입학과 졸업제도의 변화, 교육과정과 장학제도, 취업과 국내외 학생교류 분야를 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4편 교수와 연구에서는 교원 신규임용 및 재임용, 승진임용과 정년보장 제도를 살펴보고, 교수 연구 정책과 연구지



제주대학교 60년사

원 제도의 변화 과정뿐만 아니라 연구소와 산학협력 및 교수의 학술교류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제5편 학생 활동에서는 학생회 활동과 학생 운동의 흐름을 정리하고, 대학 문화와 축제, 동아리 활동과 대학인문의 변화 과정도 기술하였다. 제6편 대학과 지역사회에서는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을 살펴보고, 기성회와 동창회의 활동 상황도 정리하였다.

이외에 사진 화보를 연대순으로 배치하여 시대별 변화와 발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다. 본문 기술에 도움이 되는 그림, 사진, 도표 등 시각 자료들도 되도록 많이 실으려 노력했다.

60주년을 맞는 우리 대학교는 이제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국내외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아름답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 발전 못지않게 ‘글로벌 시대의 뉴리더’를 양성하는 ‘명품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 사회의 수많은 도전과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시대 변화에 잘 적응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연법칙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편집체제가 바뀌면서 편찬위원들의 노고도 많았다. 또 일관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애써준 편집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꼭 기록해 두고 싶다. 이 책이 우리 대학이 정체성을 지키고 대학 발전을 위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도약의 발판 마련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성숙 편찬위원장(국어교육과 교수)

제주도의 심장 제주일보

도민과 함께 달려온 67년 도민과 함께 새 67년을 뚫다

제주일보·방송



대한민국 광복 67년 · 제주일보 창간 67년

1945년 조국의 광복과 함께 창간된 제주일보는 전국 종합일간지 중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이어 세 번째로 창간된 전통지로, 전국 지방사 중에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창간 67년의 연륜으로 신문·방송겸영 뉴미디어산업의 선도적 역할과 변화를 주도하고 제주의 백년비전을 올곧게 제시하는 종합미디어 그룹으로서의 새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제주일보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령리 2599-2번지
대표전화 (064)740-6114, FAX. (064)742-2004
http://www.jejuilbo.com

서울지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705호
대표전화 (02)784-3461, FAX. (02)786-2761

대학에 부는 친환경 바람 그린캠퍼스

60살 제주대가 환경과 사람에 바졌다. 아스팔트로 뒤덮인 옥상에는 태양열 발전기가 설치됐고, 기름을 소비하며 캠퍼스를 누볐던 자동차와 오토바이 대신 전기 자동차와 스쿠터가 도입됐다. 제주대가 환경과 연애를 하기 위해 이른바 '탄소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이다. 제주대는 오는 24일 '그린캠퍼스 선포식'을 갖고 친환경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발을 걷어붙인다. '탄소 다이어트'로 환경과 설레는 연애를 시작하는 제주대의 풍경을 들여다보자.

그린캠퍼스로 변신하기 위한 노력은 작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대는 작년 10월 5일 그린캠퍼스 추진 TF팀을 구성했다. 이 팀을 통해 그린캠퍼스 조성에 첫 삽을 뜨기 시작했다. 다양한 연구와 그린캠퍼스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 여러 노력을 펼쳤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TF팀은 작년 12월 GS칼텍스와 전기스쿠터 셰어링 실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24일 '그린캠퍼스 선포식'을 통해 청정 캠퍼스를 준비하고 있다.

제주대는 오는 24일 아라무즈홀에서 '그린캠퍼스 선포식'을 연다.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이 대두되고 있는 이 때 대학이 앞장서서 녹색생활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선포식을 개최한다. 내용이 거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닌다',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한다', 공회전 및 급제동을 하지 않는 예코 운전을 한다', '종이와 물을 낭비하지 않는다', 등 누구나 쉽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문으로 내걸었다. 그린캠퍼스를 위해 초석을 닦는 이런 노력을 통해 학교는 친환경적으로 나아가길 계획이다.

그 다음으로 별이는 사업은 '그린캠퍼스 투어 코스 추진'이다. '그린캠퍼스 투어 코스'는 제주대 올레길과 마찬가지로 학내에 길을 만드는 사업이다. 태양열 발전기, 지중열 발전기, 풍력 발전기, 전기자동차 및 전기스쿠터 셰어링 등 그린캠퍼스와 연관돼 있는 곳을 연결해 코스를 만들었다. 이 사업은 그린캠퍼스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직접 걸어 온몸으로 느끼자는 취



문화교류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기

지에서 추진했다.

이외에도 전기와 관련된 교통 시스템을 학내에 구축하고 있다. 현재 제주대에는 대학 본관 앞에 전기자동차와 학생생활관 앞에 있는 전기스쿠터 등의 전기를 연료로 하는 교통수단이 있다. 전기스쿠터는 지금은 시범사업이라 학생 생활관 앞에 주로 배치해 있어 관생들 위주로만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대학본부는 전기스쿠터를 상용화해 다양한 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스쿠터를 학내에서 보편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탄소 절감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대학본부는 여러 사업을 강구하고 있다. 고효율 제품 사용을 통해 전기를 아끼는 방법, 또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을 받기 위한 노력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제주대처럼 그린캠퍼스로 탈바꿈하고 있는 대학도 많다. 동국대는 지난 2006년부터 그린

캠퍼스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걷고 싶은 거리'를 남산과 연계해 만들었다. 이 거리는 캠퍼스를 거쳐 남산을 갈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자연과 하나 되는 캠퍼스가 될 수 있게 했다. 또 '하늘 마루'라는 옥상정원을 만들어 건물 옥상을 녹지화 했다. 이 건물 옥상에 지어진 정원만 해도 1만764㎡의 녹지가 조성됐다. 이를 통해 냉·난방비 절감 및 탄소 줄이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조선대는 '조선대 유니버시티 파크'를 만들어 대학에 공원을 조성했다. 봄에는 산수유, 개나리, 벚꽃이 피고 5월부터는 철쭉과 장미가 꽃을 피운다. 또 여름부터는 배롱나무 800그루가 가을까지 화려한 꽃잎을 뽐낸다. 꽃과 나무가 내내 퍼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캠퍼스로 거듭나는 노력을 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대학들이 그린캠퍼스로 바꾸기 위해 뛰어들고 있다. 대학들은 '그린캠퍼스 협의회'를 만들어 친환경적인 캠퍼스가 되



전기자동차가 지난해 3월부터 교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학내 구성원들의 의식변화가 아직 덜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변전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여름철에 강의실을 살피고 있는데 한 학생이 에어컨 두 대를 틀어놓고 혼자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원 수업이 끝난 뒤 켜져 있

는 컴퓨터들도 많고 전등을 안 끄고 나가는 사례들도 많다. 이런 사례들이 모여 많은 낭비를 일으키고 있다. 제주대에서는 한 해 전기사용료로 20억을 내고 있다. 이 전기 사용량은 매년 늘어 대학재정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면 우리의 낭비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우리가 꼭 그린캠퍼스를 추진해야 할 이유 중 하나다.

대학본부는 그린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의식 때문에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대학본부에서 아무리 그린캠퍼스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펼치더라도 구성원의 참여와 의식전환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물과 전기를 아껴 쓰고, 걸어 다니고 이런 작은 노력들을 통해 그린 캠퍼스를 만들 수 있다. 대학본부의 정책과 구성원들의 의식이 합쳐져야 비로소 그린캠퍼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김동현 기자

그린캠퍼스를 위한 제언

캠퍼스 생활에서 전력낭비 심해

예코 프렌들리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뜻한다. 우리가 무심코 낭비하던 전력, 수도 등을 아끼고 물건들을 재활용하는 기본적인 행동들도 예코 프렌들리가 될 수 있다. 예코 프렌들리 생활을 통해 제주대, 더 나아가 지구를 보존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예코 프렌들리 생활에 대해 제언해본다.

나무를 사랑하자

20년이 된 나무 한 그루를 베면 10만 개의 종이컵이 만들어진다. 제주대 구성원이 종이컵을 하루 한 개씩 일 년을 쓰면 20년이 된 나무 219그루가 베어진다. 그렇다면 모든 구성원이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쓴다면 연간 219그루의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머그컵을 씻기 위해 세제를 쓴다면 종이컵을 쓰는 것보다 환경을 파괴한다. 머그컵으로 기름기가 없는 물, 음료수 등을 마신 뒤에는 물로만 흘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면지를 많이 활용하고 리포트 표지 없애기 등의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종이, 박스들을 따로 모아 놓아 재활용하도록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전력을 아끼자

우리 학교는 1년에 2000만kw의 전기를 사용한다. 전기세로 20억 이상이 새나가고 있다. 캠퍼스가 넓다보니 사용량이 많지만 우리가 아껴 쓰지 못한 부분이 많다. 가령 정보통신원에서 수업이 끝난 뒤 켜져 있는 컴퓨터가 많다. 또 수업이 끝나도 전등이 켜져 있는 곳들도 많다.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아껴야 한다. 강의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이 불을 끄고, 컴퓨터를 사용했으면 꺼주지만 해도 충분하다.

또 여름철, 겨울철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 때 사람이 여럿 모여 있는 곳에서만 사용해도 충분히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혼자 있는



제2도서관 위에서 본 캠퍼스 모습

데 에어컨을 트는 것보다 몇 명에서 모여 있을 때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더불어 제주대는 일반 상수도에 비해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력사용량도 만만치 않다.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도 물을 아껴 쓰자.

분리수거를 하자

학내 쓰레기통을 보고 있으면 병이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등 분리수거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기숙사에는 일반쓰레기/재활용으로 구분은 돼 있지만, 자신이 지나가는 통로에 가까운 쓰레기통 순으로 버리고 있다.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10%이상 절감되므로 쓰레기를 버릴 때 구분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또 바용뿐만 아니라 처리를 하면서 생기는 독소 물질 등도 많이 사라지게 된다. 이 외에도 매립지를 줄이면서 토양을 보존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누구나 캠퍼스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많지만 꼭 실천해주면 하는 방법들을 소개했다. '아나바다 운동'을 기억하는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내용이다. 학내 구성원들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간다면 그린 캠퍼스는 물론 우리나라, 지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초석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김동현 기자

제주자연의 깨끗함과 함께하세요!

제주삼다수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의 청정지역에서 끌어올린 제주삼다수는 수많은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한라산의 현무암질 천연화산층을 통과하여 만들어진 순수한 화산암반수입니다.



스마트폰의 QR코드를 이용하여 삼다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Jeju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rp.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번지 | 064) 780-3300 www.jpdc.co.kr